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35.93	↑ 코스닥	714.46
	(-8.35)		(+7.87)
↑ 금리 (연·9월)	2.897	↑ 환율 (원·달러)	1347.25
	(+0.016)		(+19.65)

당국 제재 사정권... 중징계 불명예 보다 자진사퇴 가능성

흔들리는 100년 은행

② 임종통 회장 거취는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에 금감원 압박·중징계 무게
손 전 회장 사례와 비슷해 임 회장 이달 중 결정될 듯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로 금융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임종통 현 회장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종통 회장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부당대출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 이후 금융당국 보고가 늦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고, 감사 결과 임 회장이 부당대출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를 날린 상황이다. 부당대출 사태 해결은 우리금융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향후 임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 자진사퇴 가능성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내년 예정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도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우리금융을 향한



임종통 우리금융 회장. /우리금융

비판을 공식적으로 세차레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손태승)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은행 내부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했어야 한다”며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질타했다.

이후 25일에는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 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 4일에는 “현 경영진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며 이사회에 향후 경영진 거취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번 사안은 여신심사 부실에 해당하므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손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상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두 번이나 “송구스럽고,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임 회장이 추석 전·후로 부당대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면에서 나서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임 회장은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대통령실의 관심, 대형 인수·합병(M&A) 승인 여부, 검찰 수사 방향성 전개 등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에 임 회장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중징계 가능성도 높기 때문

에 불명예 꼬리표보다는 자진사퇴가 우리금융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종통 회장 성격이 남 눈치 보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 현재 노출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사안이 심각해지고 금융당국이 자진사퇴 기회를 주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든 이달 중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사퇴 압박... 손 전 회장과 데자부

현재 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기조는 지난 손태승 전 회장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 전 회장의 연임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결국 손 회장은 지난 1월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한국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1조6700억원 상당의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펀드 판매 청구 중 하나였던 우리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손 전회장은 중징계를 받았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

AI 시대, 지능화된 물류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흐름(flow)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며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물건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그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 ◆ 주 제 : AI시대 FLOW전략
이동의 한 순간, 물류의 매 흐름
- ◆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르다타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강 연 :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학과장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차두원 소네트 대표
김준환 스트라드비전 대표



티메프 등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율

공정거래법·유통업법 개정

시장점유율 60% 이상 플랫폼 4대 반경쟁행위 금지 추진
중개거래액 1000억대 플랫폼 판매대금 정산주기 등 의무화

정부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정산 불능’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정산 주기·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관련기사 3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

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연간 중개거래액 기준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해 정산주기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인 과실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

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정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와 법안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정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박태홍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대통령실, 여야 의료계 논의 촉구해 “전적으로 동의·지지” /사진 뉴스스
- ▲ 윤·여 최고위원 일부 관저만찬… “정치권 등 자주 만나”

- ▲ 윤 지지율 29.9%, 부정평가 66.1%… 4주 만에 하락세 멈춰 /사진 뉴스스
- ▲ 조국 “윤, 전 정권 탓만 해… 김건희는 대통령 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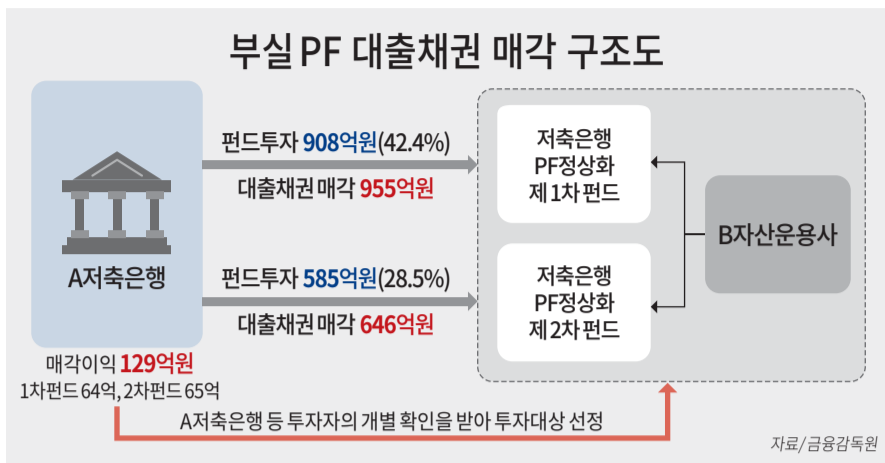
- ▲ 법사위 1소위,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전체회의 넘겨… 여 반발 ‘되장’ /사진 뉴스스
- ▲ 이재명 “시로 특정 소수 혜택보고 다수 배제… 격차 해소 고민해야”

PF 부실채권 ‘꼼수매각’… 순익 129억 부풀리고 연체율 낮춰

금감원, 상상인저축은행 수시검사 계열사 오하자산, 부실이연 조력 전분기비 연체율 2.6%p 떨어져 건전성 ‘양호’ 착시현상 일으며 “상상인, 기본질서 훼손 엄정조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셀프 매각’해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을 129억원 늘리고 연체율을 낮춘 상상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조력한 자산운용사도 발각됐다.

금감원은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 펀드 운용사인 오하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오하자



산운용의 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자금액은 총 1945억원으로 펀드설정액의 90.9%에 달한다.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대출원금에서 총당금을 뺀 ‘장부가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했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매각이익은 151억원으로 증가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8월에도 오하자산운용의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규모는 1017억원으로 늘어나며 이는 펀드 총설정액의 49.5%에 해당한다. 이후 원금 715억원에 할인율 9.7%를 적용한 646억원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매각이익으로

65억원(계열사 포함 시 79억원)을 인식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오하자산운용사가 설정한 2개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투자하면서, PF 대출채권은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돼 매각 시점에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해 연체율 등의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금감원 측은 오하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OEM 펀드’를 운영해 상상인저축은행 부실 이연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불건전영업행위로,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오하자산운용은 PF 대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별도 실사 절차 없이 최대 4년 전의 대출취급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사용했다. 이렇게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됐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이미 발생한 대손충당금 환입분을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효과를 제거할 방침이다. 더불어 B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OEM 펀드를 설정·운용함으로써 펀드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엄정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등 분위기 진정”

국토부, 8·8공급대책 한 달 “8월 둘째주 주간상승률 0.32% 지난해에 0.21%까지 떨어져”

8·8 공급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8·8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주 당시 0.32%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28%, 0.26%에 이어 지난해에는 0.21%까지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며 “원인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시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인만큼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8·21 가계부채관리방안은 당장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요를 규제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8·8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에 따라 시장에 (주택

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올해 교내 담폐이크 성범죄 피해 434건

교육부, 350건 수사외피해학생 588명 등 총 617명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 및 교직원 피해 신고가 올해 400건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담폐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238건이 추가 접수돼 올해 누적 434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담폐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관련, 학생·교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의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로, 이 기간 총 2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현진 기자 lhj@

앞서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피해 접수 건수(196건)에 견줘 크게는 수치가. 2차 조사에서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담폐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지난 6일까지의 피해신고는 434건이다. 이 중 수사외피 건수는 350건이고, 184건은 사제지원으로 연계됐다.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사 27명, 직원 2명 등 총 617명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수출 호황에도 ‘내수부진’ 경기개선 제약”

KDI, 경제동향 9월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부진 진단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9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 측 분석과 상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고 평한 바 있다.

9월호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견실한 회복 흐름

을 지속했다. 그러나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돼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7월 전산업생산(0.5%→2.7%)은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건설업이 부진하고 제조업도 조정되면서 계절조정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했다. 상품소비는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 서비스 소비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폭이 완만해 전체적인 미약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7월 소매판매(-3.6%→-2.1%)는 신제품 출시로 판매가 크게 늘어난 통신키기·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비스 소비도 정보통신업(2.9%→5.0%)의 생산증가세는 확대됐으나, 숙박·음식점업(-1.0%→-3.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1.2%→-0.7%) 등의 생산이 줄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임종룡, 금융위원장 만남 성사 초미 관심

» 1면 ‘흔들리는 100년 은행’서 계속

당시 손 전 회장의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금감원장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했고, 이후 “조용병 회장은 3연임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면서 손 전 회장의 용퇴를 압박했다.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도 “소송 논의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며 손 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하고 연임 시도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현재 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입장과 과거 손 전 회장을 향한 금감원의 기류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임 회장의 만남이 성사 될 경우 자진사퇴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또한 2010년대 이후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들이 자진 사퇴했다는 점도 임 회장의 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2017년에는 이광주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지난 2018년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로비 사건으로 사퇴했다. 앞서 손 전 회장 역시 라임펀드 사태를 책임지고 용퇴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이라며 “우리는 행 이사회내부에서도 현재 임 회장의 거취를 두고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월 마감부터 30일 이내 정산...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의무화

공정거래법·유통업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적용 범위 확대
중개·검색·광고 등 6개 분야 규제
혁신·성장 제한 감안, 복수안 제시

정부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연간 중개거래액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과 규제 수준은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으나, 반경쟁행위가 지속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점업체 등을 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법 규율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정 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나온다.

◆ 공정거래법 개정...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

우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범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전에 규율대상 플랫폼을 지정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

사후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1사 50% ↑ 등)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 등)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했다.

규제 분야는 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로 했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점책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은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한 8%로 상한을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갑을 분야 규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을사업자인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와 규제 수준은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2개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또는 '연간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2안) 중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역시 2개 안으로 제시했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1안), '월 마감일부터 30일'(2안) 중에서 정한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1안) 또는 50%(2안)를 예치·지급보증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뒤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배달 수수료 대신 적립·할인 혜택” 프랜차이즈업계, 자사업 강화 속도

자체 앱 통해 차별화 서비스

BBQ 할인권 등 프로모션 전개
교촌치킨 UI 개선... 킷오더 추가
롯데GRS DB활용 타깃 마케팅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둘러싸고 외식 프랜차이즈와 배달앱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 사용하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앱 이용 고객에게 적립,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2020년 8월부터 자사업을 통해 금액 할인권, 사이드메뉴 증정 등 프로모션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자사업 이용자 수가 2020년 30만명에서 올해 4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달에도 오는 30일까지 자사업 회원이면 전 메뉴 주문시 무조건 '황금 올리브 치킨' 반마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bhc는 회원가입 없이도 주문할 수 있는 비회원 기반의 간편주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앱 이용 자체를 늘리기 위함이다. 또한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자회원제도 운영하고 있다. bhc는 배달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자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역시 자사업을 통한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교촌치킨은 지난 2021년 자사업 개편



BBQ 앱 /제너시스BBQ



롯데이츠앱 /롯데GRS

에 나섰으며 올해 4월에는 UI를 개선했다. 자주 주문한 메뉴를 다시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킷오더' 등 기능을 더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자사업 이용시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이어오고 있다. 교촌치킨은 파리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자사업에서 10% 포장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교촌치킨 앱 누적 회원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570만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2021년(254만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프랜차이즈가 자사업을 운영중이며, 자사업을 활용하면 중개 수수료가 없어 점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또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와 크리스피크림도넛 등을 전개하는 롯데GRS는 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사업 등급별 리워드 쿠폰 매일

발행, VVIP 등급 고객 초청 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제공과 같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자사업 회원 유치 및 이탈 방지를 위해 매일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 주문 유형, 주문 방법(배달, 픽업, 방문)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타깃 마케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고 자사업 강화에 나선 이유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으로 고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을 사용하면 중개수수료 및 부가세,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업은 가맹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브랜드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사업 강화를 위한 업계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전기차 화재사고 절반 '원인불명' "보험 통해 피해보상공백 줄어야"

건당 피해액 내연기관차 2배 이상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확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내연기관차가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재산 피해액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다국어 지원에, 자동결제... 外人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확산

IT업계, 로컬 플랫폼 변화 시동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로컬 플랫폼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이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이용자 확보를 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9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상반기 방한객의 91% 수준을 회복한 수치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이 글로벌 플랫폼보다는 자국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국 플랫폼은 한국인들에게는 편리하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 도보 길찾기 안내가 불가능하며, 지도 정확도도 떨어진다. 이는 구글이 한국 내 서버를 두지 않아, 제한된 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규안 경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들로 인해 역설적으로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민간이나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관광객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라파고스 현상은 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해 해외로 퍼지지 못하고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말한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는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

영어·중국어 등 100여개 언어 지원 택시 기사와 채팅서 언어 자동 번역 달러·엔 등 외국 통화로 요금 예상 韓 포함 14개국 등서 사용 가능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길찾기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관련이다. 특히 택시 관련 민원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6월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3 관광 불편신고종합분석서'에 따르면 관광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불편 사항 902건 중 택시 관련 민원이 170건(18.8%)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부당요금 징수 및 미터기 사용 거부'가 66.5%로 가장 많

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IT기업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맞춤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를 출시했다. 케이라이드는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지원한다. 택시 기사와 채팅을 할 때 100여개 언어로 자동번역되고, 목적지를 외국어로 입력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요금 징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결제 편의성도 높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멕스, JCB 등 신용·직불카드 자동 결제가 가능해 현금을 낼 필요가

네이버 '지도'

일본어 등 외국어로 지도 서비스 업체명·주소 등 외국어 정보 제공 도보·대중교통 다양한 길찾기 기능 가게 특징 등 살피는 키워드 리뷰

없다. 또 택시 호출 전에 미국 달러, 중국 위안, 일본 엔에 따른 예상 택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라이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일본·싱가포르·중국 등 14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 비중이 급증하며 이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케이라이드를 연내 30여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부터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를 통해 해외에서도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확장 중이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네이버 지도'를 통해 방한객도 지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 등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 내 업체명, 주소, 업종(카테고리)뿐 아니라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가게의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키워드 리뷰까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모두 외국어로 지원한다. 또 도보·대중교통·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길찾기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네이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로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 일간활성사용자수(DAU)의 지난달 평균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0.8% 증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여행 앱 동향 및 이용 현황 조사'에서도 네이버 지도가 1위를 기록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12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2%가 네이버 지도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구글 맵스(33.9%)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 여행 시 가장 만족한 앱으로도 27.8%가 네이버 지도를 꼽았으며, 이어서 파파고(9.9%), 구글 맵스(6.3%)가 뒤를 이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김범수 "시세조종 혐의 부인"... 검찰, 900개 증거로 진실 공방

(카카오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

직접지시·사전승낙 여부 쟁점 SM 인수과정서 추가조작 의혹 11일 서울남부지법서 첫 공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첫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했는가다. 김 위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900여 개에 달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판사 양환승)는 오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법정에서 나올 예정이다. 흥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공판 또한 함께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서울남부지법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 8월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갈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추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은 혐의를 받는 흥 카카오 전 대표와 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를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나흘에 걸쳐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인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추가 유지를 위해 작년 2월 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김 위원장이 2400억원을 동원한 시세 조종 전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시세조종을 지시 했거나 사전에 이를 알고 승낙했는지 여부가 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은 보고받았으나 구체적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투자전략부장은 김 위원장의 입장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지난달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손잡았다"고 진술했다. 작년부 터 재판을 이어가는 중인 배 전 총괄은

시세조종 혐의를 부정하고 "경쟁적인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정상적인 기업 경쟁이었으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기소 후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총괄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재판 중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900여 개의 새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맞선 상태다.

김 위원장은 현재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금융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판사 출신의 한승 법률사무소 한승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세종 김민형 변호사 등이 선임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데 공헌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저축은행 합수단·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대검법외수익환수와 등에서 활약한 이력이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먼저 이해하고
파도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변화의 흐름에 함께 하겠습니다

SK

與 “李 위해 탄핵안 남발” vs 野 “尹, 김건희 여사 사고돌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與 “내달 이재명 법원 재판 예상
판사 공갈협박·판결불복 사전 포석
계엄령 의혹도 지지 받기 위한 행위”
野 “김 여사, 韓 권력 1위 소리 들려
300만원 가방 받았으면 기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시

제 418회 정기국회 본회의의 시작과 함께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며 공세에 열을 올렸다.

국회는 9일 오후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연 가운데, 야당의 첫 주자는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등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민주공화국에 권력 서열 1위라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권력 1위가 김건희 여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알

고 있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위기도 감사원도 작아지나”라며 “대통령이 여사만 사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의원님을 잘 모시고 일했던 전직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식사비 10만4000원 상당을 경기도 법원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10만4000원 카드 썼다고 기소하면,

300만원 가방을 받았으면 기소해야 하지 않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꼬집어 냈다.

또, 윤 대통령이 불참한 제22대 국회 개원식 날에 청와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방한한 미국 상원 의원 부부가 만찬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개원식날 대통령이 미국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파티를 하나”라며 “정신나간 대통령실은 하필 이런 사진을 공개해서 입장을 지르나”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비서실장, 공보수석,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의 최고였던 박 의원님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

했다.

대정부질문의 여당 첫 주자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알려진 5선 중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10월 11일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법원 재판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향한 공갈 협박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제기하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도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팬덤 정치가 의회 정치를 집어삼켜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만나신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격, 민주주의,

경제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정치적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계엄을 활용하겠나”라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명분을 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 있으면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은 정권 교체 직전부터 탄핵을 운운하고 주말 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거나 국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도 열었다”며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면 탄핵안을 발의하라”고 했다. 또 “국무위원과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안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인 문다혜씨의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문다혜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몰염치한 썩거루”라며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었다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썩거루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검찰, 文에 증거없이 뇌물죄 덮어씌워… 불공정 수사 강력 대응”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무혐의’ 처분
검찰, 편향·차별적인 잣대 들이대”
문다혜 씨 수사는 별건… 文 괴롭히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를 출범시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대응에 나섰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출범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사인 김영배 의원 포함 13명의 의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

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 사위 타이이스 타겟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과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은 청탁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냈다”며 “그런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우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검찰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상황을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전정권탄압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 불공정 수사 관행을 멈춰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독립 생계가 명확한 전 사위가 7년 전에 받은 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 가방은 문제가 없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제2노동당시계”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검찰이 노동당 시계에 관한)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마구 흘려대면서 망신 주기, 모욕주기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먼

지떨이 식으로 압박했는데 결국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수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13일 한준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출범될 검찰독재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한 (검찰의) 민주당 전체와 문재인 전 정부 대한 공격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함께 일점 조율을 하고 특검법을 포함한 법안 처리 같은 것에 발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검찰이 문다혜 씨의 수사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

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은 2018년이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다혜 씨에게) 5000만원 뭇치돈 또는 출판사가 2억5000만원 전달했다는 의혹과 제주도 주택 별장 표기 등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취업’을 본건으로 수사 중인데 진척이 없자 별건으로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윤 의원은 “제가 볼 땐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흘려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지점을 언론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위를 한 검찰 관련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與野, 정치·윤리개혁특위 구성 ‘공감’

유원식 국회의장·與野 원내대표 회동
인구위기, 연금, 지방소멸 등 더 협의

여야 원내대표가 9일 만나 정치 개혁, 연금 개혁, 기후 위기, 인구위기, 윤리, 인공지능(AI), 지방소멸 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면서 추후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특위 설치에 대해 공감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의장님과 함께 국회 구성 특위 관련 관심 분야와 국회에서 설치해야 할 특위에 관해 말씀을 나눴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구위기대응특별위원회(인구특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지방소

멸특위)는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참여”라며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하고 정부·여당이 이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장과 여야가 함께 인식했다”며 “함께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尹,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임명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 탄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찰출신의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사진)을 임명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신임 처장은 경찰대학 2기로 재학 중에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임직했다.

경찰대를 수석졸업한 뒤 경찰청 마약

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마포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의 임명으로 이명박 정부 어청수 전 경호처장 이후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이 탄생했다.

한편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서예진 기자 syj@

KLPGA

LADIES ASIAN TOUR SERIES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모두가 하나되는
아시아
No.1 골프축제

2024.9.26(목) - 29(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 관



방 송



장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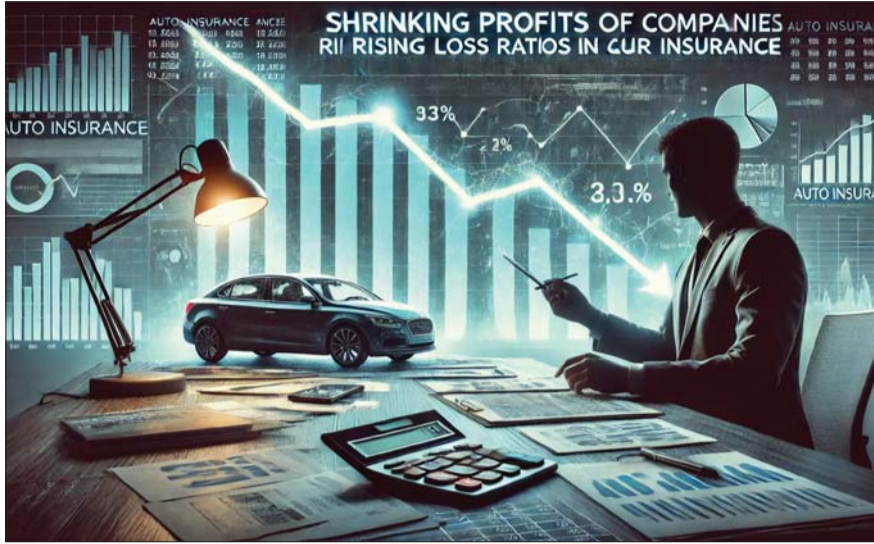
기획/운영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핑크 |

車보험료 인하로 손해율 '쑹'... 손보사 손익 '뚝'

빅4 손보사, 車보험 손익 일제 감소
삼성화재 2분기 손익 전년비 반토막
손해율 평균 82.2%... 3.8%p 급등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불가피



챗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손익 감소 이미지.

연일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에서 발목이 잡혔다. 연이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손해율 상승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이 줄어 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모두 감소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올 상반기 차보험 손익은 1490억원으로 전년 동기 2020억원 대비 26.1% 줄었다. 2분기만 봐도 차보험 손익은 470억원으로 950억원이던 전년 대비 50.9% 감소해 반토막났다.

DB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차보험 손익은 1620억원으로 전년 1820억원 대비 10.7% 감소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2조3020억원에서 2조2700억원으로 1.4% 줄어 들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1분기 78.2%에서 2분기 79.2%로 상승했다.

현대해상은 상반기 차보험 손익으로 전년 1489억원 대비 44.6% 감소한 825억원을 거뒀다. 2분기만 보면 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734억원 대비 45.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KB손해보험도 상반기 352억원의 차보험 손익을 냈는데 전년 705억원 대비 50.1% 감소해 반토막났다.

손보업계의 차보험 손익이 쪼그라든 요인으로는 몇년간 차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꼽힌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2022년

1.2~1.4%, 2023년 2~2.1% 인하했다. 올해 2월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상생금융으로 2.5~3% 가량 인하폭을 대폭 키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속된 차보험료 인하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해 차보험 손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하의 여파로 차보험 손해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인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형 4개 손보사의 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2.2%로 전년 동월 78.4% 대비 3.8%포인트(p) 급등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 84.4% ▲현대해상 82.4% ▲삼성화재 81.6% ▲DB손해보험 80.5% 등 손해율이 모두 80%를 넘어섰다. 4개 손보사의 1~7월 누계 손해율도 작년 77.5%에서 올해 79.9%로 2.4%p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해율 상승을 감안하면 하반기 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사들은 차보험료 인상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자동차 침수 피해 같은 부분이 있어서 7월 차보험 손해액이 평가될 하반기에는 차보험 손익은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며 “손해율 방어 등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전체적인 손익 저하를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명확하게 나타나 내년도 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착한골프보험’ 라운딩 중 상해 보장

삼성화재가 골프보험을 출시했다. ◆ 기존 대비 보험료 47% 인하
삼성화재는 골프 라운딩의 핵심 담보들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전용 신상품 ‘착한골프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 라운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와배상책임, 휴일원 축하금을 보장한다. 고객의 스케줄에 맞게 라운딩을 보장하는 ‘일권’과 한번 가입 후 시즌 내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즌권’(1~12개월) 중 선택해 가입 가능하다.

기본담보인 ‘골프 중 상해후유장애’가 1억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골프 중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업계 최대 금액인 1억원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골프 라운딩 시 가장 선호하는 ‘휴일원’ 특약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보장 범위를 늘려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



KB손해보험이 이만기·이희준이 함께 출연한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 /KB손해보험

“부실우려 등급 부동산PF 사업장, 6개월 내 정리를”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외형 성장에만 치중
지배구조 등 규제체계 마련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상호금융권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부실 우려 등급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5곳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외

형 성장에만 치중하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자산 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경쟁에 집중해 자산규모가 관리역량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위기상황에 놓이고 있는 만큼 건전성을 회복하고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부동산 PF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실우려 등급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완료해 달라”며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정리방안은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30%로 제한하고, 합계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실채권을 빠르게 매각해 부동산업·건설업과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동일업무·동일규제에 따라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며 “앞으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정리 등 각 분야별로 규

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고, 자산 관리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 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을 확충해 운용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호금융권은 현재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해 반성하며, 금융위의 건전성 관리 강화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손해보험, 바이럴 영상 이만기·이희준 열연

KB손해보험이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

◆ 만기왔다이렉트·만기가 코앞 영상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KB손해보험 다이렉트의 새 모델로 발탁된 이만기와 최근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이희준이 함께 열연한 ‘만기왔다이렉트, 만기가 코앞’ 바이럴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KB손해보험 다이렉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만기왔다이렉트’ 편은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 씨가 ‘만기왔다이렉트 송’에 맞춰 춤을 춰 자동차보험 만기를 앞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과 만나는 모습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흥국생명 ‘다사랑더건강보험’ 이력 고지기간 세분화

흥국생명이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했다.

◆ 건강 유지할수록 보험료 할인
흥국생명은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고지의무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다사랑THE건강할때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알리는 고지의무기간을 6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했다. 고객이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합한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건강을 유지할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를 제공한다. 가입 1년 이후부터 매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4차례에 걸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

수도권도 ‘국평’ 분양가 10억 시대

북수원이목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 1층 전용 84㎡ 분양가 10억2053만원

공사비 급등 등으로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수도권에서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0억원 이하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경기도 수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저층의 분양가가 10억원을 웃돌았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서는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의 분양가는 전용 84㎡는 최고가 기준 10억7473만원이다. 테라스 등 혜택

이 있는 최상층은 14억9673만원에 달한다.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 은이목지구도시개발사업 A4블록으로 총 768세대 규모다. 전 세대가 84㎡ 단일 평형이다.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84㎡B 타입은 분양가가 1층도 10억2053만원이며, 중층인 8~10층이 10억4223만원이다. 최상층은 14억9673만원이다. 84㎡C 타입의 경우 1층 분양가가 9억7676만원이며, 11~15층은 10억786만원이다.

서호천을 사이에 두고 인근한 ‘수원SK스카이뷰’의 84㎡가 올해 6월 8억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분양 홈페이지

350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SK스카이뷰는 2013년에 입주했으며, 지난 2021년 10월에 최고 1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주변 신축으로는 올해 입주한 ‘북수원자이렉트비아’의 84㎡가 8억1380만원에 거래됐다.

수원시 전체로 보면 영통구에서 ‘광교중흥S클래스’가 지난달 16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북수원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I 청약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3일 2순위를 접수한다.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 해당주택한 10년, 전매제한 3년이 걸려 있지만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0@

르노코리아 노하우·기술 집약 넓은 실내·첨단주행 ‘매력적’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차별화
12.3인치 대형스크린 3개 연결
고속주행에도 소음·진동 미미

르노코리아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오랜기간 공들여 내놓은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르노코리아의 야심작 그랑 콜레오스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은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을 출발해 통영 수산과학관과 거제 농소몽돌해변 일대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진행했다.

그랑 콜레오스는 넉넉한 차체 크기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특히 차량 곳곳에 로장주(다이아몬드) 엠블럼을 닮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적용해 르노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실내는 운전석에 앉으면 탁 트인 개방감이 주행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운전석 계기반에서부터 동승석 대시보드까지 12.3인치 대형스크린 3개를 연결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3개의 디스플레이는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행 성능도 매력적이다. 고속 구간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 모습.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인테리어.

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도 엔진음이나 노면 소음, 진동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르노코리아는 차량 내부에 설치된 3개의 보스 마이크로폰을 통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스마트크루즈를 설정하고 급커브 구간에 들어서면 차량 스스로 속도를 낮춰 민첩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랑 콜레오스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성이다. 그랑 콜레오스 복합연비는 테크노 트림 기준 15.7km/L다. 경쟁 모델인 쏘렌토 하이브리드(15.5km/L)와 쏘렌토 하이브리드(15.7km/L)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다. 다만 그랑 콜레오스에 적용된 휠이 19인치라는 점에서 17인치 휠을 적용한 쏘렌토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가 4년만에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그랑 콜레오스는 패밀리 SUV로 충분히 매력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 어쩌면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 시장에서는 더욱 뜨겁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코리아의 실정 반등을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도심형 수소전기트램 공개

홈페이지 개설... 디자인·제원 등 소개

현대차그룹 수소모빌리티 생태계의 한축을 차지하는 도심형 수소전기트램이 베일을 벗었다.

현대로템은 9일 수소전기트램의 상세 재원을 알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차량 개발 역사부터 디자인, 기술력 등 주요 특징까지 핵심 내용들을 모두 모은 종합 홍보 플랫폼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수소전기트램의 내외부 디자인은 물론, 개발 역사를 담은 특별 다큐멘터리 영상, 핵심 기술 사양 및 차량 제원 등 세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해 동작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정화 효과가 있으며, 주행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전력 공급을 위한 별도의 전차선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현대로템이 개발한 수소전기트램은 1회 수소 충전으로 150km 이상 달릴 수 있으며, 충전에 필요한 시간도 15분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 배터리 방식의 트램이 1회 충전으로 20km 이내로만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 홈페이지

달릴 수 있고, 충전에도 1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리성이 뛰어나다.

설계 최고 속도는 시속 70km이며, 열차를 이끄는 구동대와 고정식 부수대차 등 5개 모듈로 구성된다. 수소 탱크 확장을 통해 주행거리도 더 늘릴 수 있으며, 최대 승차 인원은 300명 이상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시민들 곁에서 혁신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며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로 보는 재미를 더한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수소전기트램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개발

갤럭시 스마트폰 적용 예정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악성 메시지를 차단한다.

삼성전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업해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한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할 예정이다.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은 악성 메시지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기능으로, 불법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캠 메시지로 인한 각종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예방한다.

해당 기능은 원 UI 6.1 이상이 적용된 국내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순차 적용되며 하반기 내 적용 완

료될 예정이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설정 화면에서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다.

삼성전자와 KISA는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업을 지속해왔다. KISA는 일평균 150만 건의 스캠 신고를 분석해 악성으로 판단된 발신 번호와 위험 링크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토대로 필터링을 적용해 기능 개발을 진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일부 스마트폰 모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탑재해 기능 검증을 진행하고 최적화를 완료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 시큐리티팀장 최호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모바일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코프로, 인도네시아 양극재 사업 추진

中 전구체 제조사 GEM 협력
“통합 밸류체인으로 캐즘 돌파”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에 통합 양극재 사업을 추진하며 캐즘(수요 정체기)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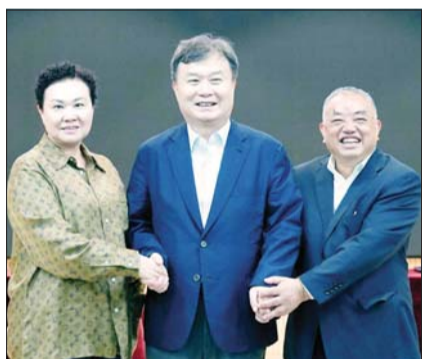
에코프로비메이 중국 전구체 제조사인 GEM과 손잡고 양극소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GEM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인수해 전구체에 이어 제련업에 본격 진출한다.

에코프로 최대주주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GEM 허개화 회장과 최근 에코프로 오창 본사에서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임직원들에게 사업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제련-전구체-양극재 등 양극소재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돼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양극소재 시장 가격 파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GEM은 인도네시아에 니켈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편 전구체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과거적 혁신 없이 현재의 캐즘을 돌파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과 GEM과 맺어온 돈독한 신뢰를 기반



(왼쪽부터) 왕민 GEM 부회장,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허개화 GEM 회장이 에코프로 본사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코프로

으로 제련, 전구체, 양극소재를 아우르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 개파로 인한 캐즘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에코프로도 현재에 안주 하다가는 3~4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다”며 “GEM과 함께 구축하는 통합 밸류 체인이 배터리 캐즘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 소재 산업은 광산, 제련, 전구체, 양극재 등 크게 네 부분의 생태계로 구성되는데 GEM은 니켈 제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소재에서 세계 1위라는 점에서 두 회사의 협력은 게임 체인지가 될 전망이다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이와 관련 GEM과 실무 작업을 추진할 TF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구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구체 사업을 담당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허개화 회장은 GEM이 보유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공장 ‘그린에코니켈’ 사업을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제련업 진출과 IRA 부합하는 니켈 자원 확보를 지원키로 합의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비 중국산 전구체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GEM이 보유한 니켈 제련소 지분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제련과 전구체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기업이 돼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서 나오는 전구체는 미국의 IRA 규정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TX, 트롤리고 거래액 7000만달러 돌파

중소기업 해외판매창구 각광

런칭 후 운영 8개월 만에 누적거래액 7000만달러를 넘어선 STX의 글로벌 B2B 디지털 플랫폼 TrolleyGo(트롤리고)가 중소기업의 해외판매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 회원을 유치하고 거래 품목을 확장하고 있는 트롤리고와 해외 판로 개척에 목마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지난 6일 기준 트롤리고 누적거래액이 7430만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벤더 가입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트롤리고는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거래를 디지털로 전환한 B2B 플랫폼이다. 기업이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제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 유통비용이 없어 기업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해외진출의 징검다리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컴퍼니 ‘라이프 스틸러(LIFE STEALER)’의 ‘옛 호작도(ett hojakdo) 치약’이 기업 고객에게 대량 판매되기도 했다.

STX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전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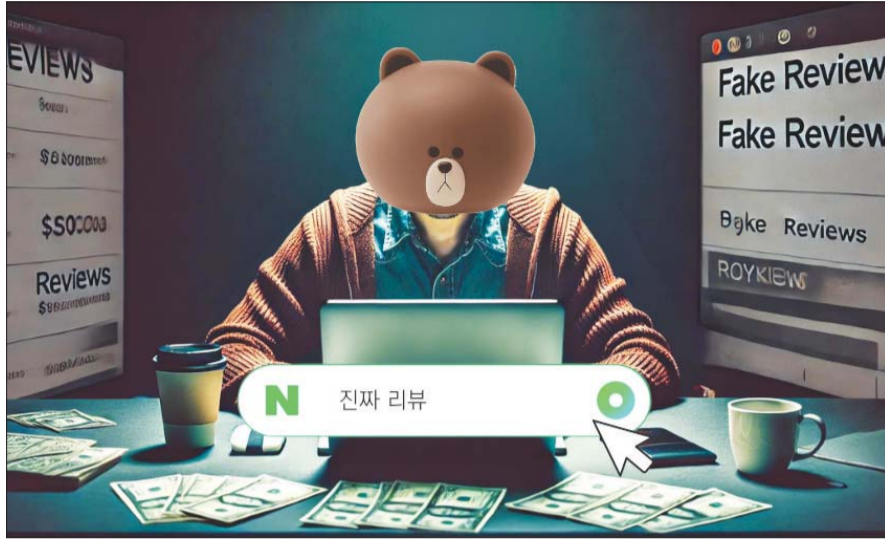
블로그 가짜 영수증·조작된 리뷰... AI가 해답 될 수 있을까

네이버, '가짜리뷰' AI 대응 전략
검색 알고리즘 개선으로 어뷰징 방지
실구매자 인증 강화 등 신뢰성 확보
리뷰 필터링으로 사전차단·패널티

"합법적인 내용의 마케팅 원고를 올려주 시면 소정의 원고료 3만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김민지씨(36)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 제안에 혹하는 마음이 들었다. 댓글을 남긴 이는 자신이 SNS 마케팅 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다양한 마케팅 원고를 전달할 테니 블로그에 올리지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목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받고 게시물'은 문장만 덧붙이면 된다고 했다. 김씨가 받은 원고는 영장민창, 그저 동일한 키워드를 반복하며 영업장을 보여만 주는 글이었다.

생성형 AI가 검색엔진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광고성 콘텐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네이버는 '가짜리뷰'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짜리뷰'를 작성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9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가 '가짜리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서현 기자

지난해부터 네이버가 블로그·플레이스 등 이용 정책을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가짜리뷰 퇴치에 나서고 있다.

가짜리뷰는 웹 2.0 시대 등장한 SNS의 발전과 함께 한다.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보다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SNS 리뷰와 댓글을 신뢰하고 구매결정단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SNS 리뷰가 마케팅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다양한 업계에서 SNS 리뷰를 통한 마케팅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가짜리뷰'

다. 가짜리뷰는 SNS 이용자가 실제로 경험한 적 없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한 것처럼 작성하는 리뷰다.

네이버는 가짜리뷰로 고생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힌다. 블로그와 쇼핑, 플레이스 서비스 등에 가짜리뷰가 판치면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가짜리뷰 퇴치를 위해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이용 정책을 바꾸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네이버 블로그에 '내돈내산' 인증 기능을 추가했다. 실제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 구매하거나 주문·예약을 통한 방문내역을 연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해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지난 1월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가짜리뷰 단속을 우회해 이용 정책 개정을 진행했다. 동일한 내용의 도배성 리뷰를 작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리뷰를 삭제 후 재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미 환불된 영수증과 일부 환불된 영수증을 인증해 리뷰를 쓰는 행위도 적발해 계정을 정지하고 사업주에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네이버는 검색결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뷰징 적발 기능을 고도화 하고 있다. 어뷰징(Abusing)은 클릭 수 확보를 위해 자행 되는 다양한 불법적 행위를 뜻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여러 종류의 AI 모듈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식이 알려지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어뷰징 적발 기능은 더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SNS 마케팅 업계는 네이버의 노력을 비웃듯 계속해서 네이버가 검색 결과 알고리즘을 변경하고 일주일 내에 새로운 돌과구를 찾아내고 있다. 이용정책을 개정하고 구매 내역 인증을 하계금 했지만 이조차도 가짜 영수증

발급 등으로 간단하게 뚫었다.

SNS 마케팅 업체 관계자 A씨는 "네이버에서 리뷰를 조작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영수증을 만들어내면 되고, 아이디의 구매 이력이 필요하다면 상품가격을 리뷰어에게 전달해 구입하도록 하게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AI 고도화를 통해 검색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클로바X'와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를 순차 출시했다. 큐는 복잡한 질의에도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검색 편의를 높였으며, 클로바X는 생산성 분야 글쓰기, 코드 작성, 논리적 추론 등 업무 생산성 개선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카카오톡 리뷰가 '진짜 리뷰'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며 "그동안 네이버는 AI엔진을 이용해 가짜리뷰를 거르기 위해 노력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적발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 AI기술로 고객편의·혜택 혁신 나서

SPC그룹과 인공지능 동맹 협약
서비스 연동으로 신사업 경쟁력 ↑
"미래 리테일 시장 혁신 선도 계획"

SK텔레콤이 국내 주요 유통기업인 SPC그룹과 인공지능(AI) 동맹을 맺는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양사 서비스 연동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SKT는 SPC그룹과 AI 기술 기반으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SPC그룹의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총괄하는 허희수 부사장과 SKT의 유영상 CE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T는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휴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리테일 시장의 혁신을 선도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T 유영상 CEO(오른쪽)와 SPC 그룹 허희수 부사장이 MOU를 마친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SKT

구체적으로는 ▲리테일 매장 대상 기업용(B2B) 솔루션 상품 개발 ▲마케팅 제휴 및 멤버십 앱 편의성 개선 ▲공동 사업 발굴 목적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SKT가 보유한 AI 비서 기반의 서비스 연동을 추진한다. SKT의 AI 에이전트(사용자들 대신해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SPC그룹 멤버십 서비스인 해피포인트 앱에 결합해 주문부터 결제까지 음성 대화로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혜택을 추천할 예정이다.

양사의 멤버십 서비스(해피포인트, T멤버십)를 연동해 앱 내 바코드로 해피포인트를 함께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테일 매장 대상의 B2B 사업 협력도 추진한다.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 노하우와 SKT의 B2B 인프라 역량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점포 및 재고 관리 시스템, 매장 운영 및 고객 경험을 자동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스마트 리테일 시스템 등을 공동 개발하고 SPC그룹이 운영하는 브랜드 매장은 물론 다른 프랜차이즈 기업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현대모비스, '공학교재' 고교 수업에 쓰인다

미래 청소년 공학 리더 육성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공학교재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에서 교과서로 활용된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청소년 공학 리더 육성을 위한 교재 '공학 커뮤니케이션'을 발간해 이번 2학기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정규 수업에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일반 기업이 참여해 개발한 공학 관련 교육 과정이 일반계 고등학교 정규 수업 과목으로 채택되는 국내 첫 사례다.

공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은 서울선덕고, 인천송도고 등 2개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고교 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고교 학점제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이수 학점을 채우는 방식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공학커뮤니케이션 수업은 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쓰기·말하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역할상, 경제성 판단, 최적화 등을 기초로 하는 공학적 사고 방식에 대해 배운다. 이를 다양한 주제에 적용해 글쓰기, 발표, 토론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운다.

단순한 기술인 양성이 아니라, 인문·자연과학·공학 등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섭적 인재'를 육성하는 게 공학커뮤니케이션 교과과정의 목표다.

수업 교재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 트렌드와 사회적 이슈를 탐구하는 내용들도 대거 포함됐다.

/양성운 기자 ysw@

KT, 전기차 충전소에 AIoT 영상관제 적용

전기차 충전 중 이상징후 감지

KT가 온디바이스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영상관제 솔루션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다. AIoT가 충전 중인 전기차 주변의 연기나 과열 등 이상징후를 감지해 빠른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식이다. 향후에는 원격으로 충전기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KT는 온디바이스 A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영상관제 사업을 전기차 충전소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온디바이스 AIoT를 택시 광고, 공유 키보드 등 다양한 사업에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T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협력해 전기차 충전소에 '온디바

이스 AIoT 영상관제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

KT는 영상 관제를 위한 대용량 데이터 전달 등에 소요되는 플랫폼 구축 시간 및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디바이스 AIoT 기술을 활용했다. KT의 온디바이스 AIoT를 활용하면 단말에서 실시간 수집 데이터가 AI로 처리된 후 결과만 서버로 보내지기 때문에 설치의 편의성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MM, 글로벌 네트워크 범위 확대

해운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HMM이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 가입 4년 만에 새로운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유럽항로는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 협력한다. HMM은 기존 '디얼라이언스'에서 신규 협력 체제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협력은 HMM을 비롯해 ONE(일본), Yang Ming(대만) 등 기존 디얼라이언스 3사가 함께 하기로 했

다. 협력기간은 2025년 2월부터 5년간이다.

HMM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주요 항로는 동서항로를 잇는 아시아~미국서안, 아시아~미국동안, 아시아~지중해, 아시아~유럽, 아시아~중동 등으로 구성되며, 서비스 범위 및 상세 일정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NARA CE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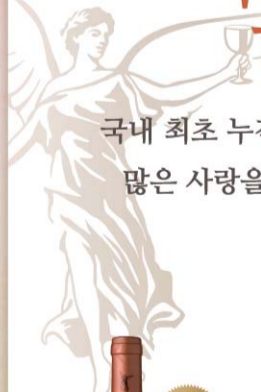
秋夕

추석에도 나라셀라와 함께 준비하세요!

나라셀라 추석 선물세트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국내 최초 누적판매 1600만병을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천사 와인 '몬테스'



몬테스 알파 엠



몬테스 플리



몬테스 퍼플 앤젤

몬테스의 품질과 아르헨티나의 독창성 '카이켄'



칠레 와인의 마에스트로이자 스타 와인메이커 '아우렐리오 몬테스'가 안데스 산맥의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와인 '카이켄'



카이켄 울트라 카버네 소비뇽



카이켄 울트라 말벡



카이켄 울트라 사도네이

❁ 판매처 ❁

WINE PICK S

- 송파점 | 02-401-3766
- 동탄점 | 031-898-6635
- 을지로점 | 02-6031-0020
- 분당정자점 | 031-712-8585
- 여의도점 | 02-3775-1875
- 이케아광명점 | 02-899-4777
- 성수점 | 02-3409-5633
- 광주봉선점 | 062-674-0985
- 청담점 | 02-514-5500
- 센텀점 | 051-747-4272
- 압구정현대점 | 02-547-8333

Naracellar Reserve

나라셀라리저브 | 02-548-3720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국내증시 떠나는 外人

삼성전자·SK하이닉스 5% 매도

(한 달간)

外人, 지난달 폭락장 후 차익실현 증권사, 추가 부진에 목표가 줄이하향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 기대치 하회 스마트폰·PC 업체, 재고소진 주력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 국내 반도체주도 비슷한 흐름 보여

‘검은 금요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만 약 5조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주의 약세가 지속되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이하향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약 18.77% 떨어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6만전자’로 다시 내려오면서 목표주가가 줄이하향되고 있다. 이날도 SK하이닉스는 0.38% 소폭 올랐으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03%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이날 KB증권은 기존 13만원이었던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원으로 대폭 내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3분기 스마트폰,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하며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분간 스마트폰, PC 업체들은 재고 소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2024년, 2025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5%, 11%씩 하향한 37조9000억원, 57조7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같은 날 현대차증권도 삼성전자의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하락’ 이미지.

목표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0만4000원으로 하향했으며, 앞서 3일에는 다음투자증권이 11만원, 6일에는 DB금융투자가 10만원으로 목표가를 내렸다. 반도체주의 추가 부진이 두드러지면서 증권가들도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만 폭락장을 보였던 지난달 2일 ‘검은 금요일’과 5일 ‘검은 월요일’ 이후 투심이 반전되면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2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랐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3조6996억원, SK하이닉스를 1조2299억원 팔아치웠다. 두 종목만 약 5조원을 털어낸 셈이다.

직전 한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선호를 유지했으나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

이 있는데,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심이 특히 더 큰 모습”이라며 “증시의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 국내 증시 내 거래비중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 번 4%대 추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꼽힌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후 최근 2주간 20.5%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셋증권 연구원은 “뚜껑을 연 엔비디아 실적은 ‘서프라이즈’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쇼크’ 수준”이라며 “최근 지지부진했던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차익실현 압력을 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나스닥, 30년 만에 新 반도체 지수 공개

(ASOX)

엔비디아·TSMC·브로드컴 등 구성 미래셋운용 “레거시 프리” 특징 ASOX 지수 추종 ETF 선보일 예정



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나스닥×TIGER ETF 세미나에서 미래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미래셋자산운용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거래소가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A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ASOX)’를 공개했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Phlx Semiconductor Sector)’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지수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미국 나스닥과 미래셋자산운용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새로운 투자기회 포착-AI 반도체와 그 너머’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ASOX 지수’는 반도체 주 전반에 투자하는 SOX와 달리 AI 밸류체인(가치사슬) 내 반도체주의 비중을 높였다. ASOX는 ▲엔비디아 20.8% ▲TSMC 18.5% ▲브로드컴을 17.6%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ASML Holding, AMD, 퀄컴, ARM 등 최대 20개 종목을 담았다.

이는 ASOX가 기존 SOX와 달리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의 레거시(범용) 반도체 업체를 지수에서 제외했다는 의미다.

이정환 미래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SOX의 특징으로 ‘레거시 프리(Legacy Free)’를 꼽았다. 데이비드 초이(David Tsoi) 나스닥 아시아태평양장부 인텍스 리서치 총괄 헤드도 “ASOX 지수 구성 시 AI 관련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지수를 구성했다”며 “종합반도체기업(IDM) 기업, 7나노미터 이하 제품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위탁 업체)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익률로 비교해 보면 ASOX의 수익률은 SOX 및 다른 지수보다 높다. 지난 5년 수익률을 지난 2019년 9월 19일부터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백

테스팅(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매매 전략 실행 테스트)한 결과 ASOX는 580% 상승했다. 같은 기간 SOX는 274%, 나스닥100지수는 16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1% 오르는 데 그쳤다.

데이비드 초이 헤드는 “AI 성장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나 AI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AI에 대해 오히려 적게 투자하고 있다”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미래셋자산운용은 ASOX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남기 미래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부사장은 “(ASOX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반도체 지수로, 레거시 프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혁신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지평 확대에 지속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에밀리 스펀링 나스닥 인텍스사업 글로벌 총괄(수석부사장)도 “30년 만에 새로운 반도체 투자 지수를 산출해 기대가 크고, 이를 한국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는 미래셋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뛰어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TIGER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STO 법제화 재개... 증권사 기대감 ‘쑥’

LS증권, 美 유리버스와 STO ‘맞손’ 하나증권, MTS에 STO 거래 탭 신설 법제화 과정 맞춰 관련 사업 준비

국회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제화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동안 움츠렸던 증권사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새 먹거리선점을 위해 STO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도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 시장은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 규모는 2026년 119조원, 2030년 3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S증권은 지난달 말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IT) 기업인

유리버스와 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토큰증권 플랫폼, 재무적 투자(FI),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폭넓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S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는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사업,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참여 등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STO시장 개화에 대비해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강화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중에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 토큰증권발행(STO) 거래 탭을 신설하고,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키움증권도 지난해 9월부터 MTS내 제공하고 있는 조각투자 정보 제공 대상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인 테사를 추가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사들이 토큰권을 유통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행사 업무 일부를 증권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라며 “증권사들이 법제화에 맞춰 계속 작업 중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MTS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리 조각투자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프라 구축을 진행해 왔던 미래셋·한국투자·KB·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는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에서는 STO 시장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TO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기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발의될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토큰증권 법제화 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관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外人, 지난달 채권 11.6兆 순매수... ‘올해 최대’

통화스왑 금리 하락에 따른 현상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연간 최대 규모의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캐리 트레이드(일본 엔화를 빌려 전 세계 주식·채권 등에 투자) 단기 충격 이후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1조6460억원어치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해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7조3750억원, 통안채(통화안정채권)는 4조1970억원 순매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통화스왑(CRS) 금리 하락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3조3343억원을 순매수해 지난 7월(3조3927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채를 제외한 기타 금융채 순매수 규모가 93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채(8642억원), 국채(772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70조1790억원으로 7월(71조3890억원)보다 약 1조2000억원 줄었다.

국채발행이 18조612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2조7000억원 줄었다. 회사채 발행은 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약 9600억원 감소했다. 금융채 발행은 28조304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23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은 지난달 총 27건(2조2140억원) 진행돼 전년 동월 대비 9740억원 늘었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8조74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6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 금액을 수요예측 금액으로 나눈 참여율은 364.7%로 전년 동월 대비 160.6%포인트 감소했다. 미매각은 A등급에서 1건, BBB등급 이하에서 1건 발생했다. /원관희 기자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 치매진단·돌봄 등 실버테크 '주목'

2030년 실버산업 규모 168조 전망
보이노시스 목소리로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 판별 국제대회서 1위
세븐포인트원 VR 활용 치매 진단
케어닥 방문요양 돌봄 플랫폼 선택
 요양보호사 매칭, 누적거래 1800억



스타트업 '케어닥'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플랫폼을 지난 2022년 선보였다. /케어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실버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기술(IT)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버테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첨단 기술로, 주로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초기에는 헬스케어에 집중했으나 주거, 여가, 문화 등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실버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

진흥원(KHIDI)은 국내 실버산업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헬스케어다. 고령화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치매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특히 치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조사결과 올해 초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5만 명에 육박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중앙치매센터 관계자는 "향후 치매를 앓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치매 환자는 2039년에는 200만 명을,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스타트업 '보이노시스'는 목소리만으로 치매를 진단하는 기술을 선보

였다. 보이노시스는 사람의 음성을 분석해 치매를 포함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측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음성 변화에 따른 뇌 기능 퇴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음성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 기술은 신정은 보이노시스대표가 건국대 이비인후과 교수로 20년 넘게 난청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경험에서 출발했다. 신 대표는 "환자들의 음성 변화를 통해 뇌 기능 퇴화 패턴을 발견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이노시스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국제음향음성 신호처리 학술대회'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질환 AI 판별 세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열린 '스타트업 월드컵'에선 한국 대표로 참가해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타트업 '세븐포인트원'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사용자가 VR로 과거 기억이 담긴 장소를

탐방하며 추억을 회상하도록 유도해 뇌를 자극하고 기억 회상을 촉진해 뇌 운동을 활성화하는 원리다.

돌봄 서비스분야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스타트업 '케어닥'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플랫폼을 지난 2022년 선보였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경험과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매칭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닥 관계자는 "출시 초인 2년 전과 비교해, 케어닥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수는 270% 증가했고 돌봄을 받는 이용자 수도 190% 증가했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케어닥의 매출도 지난 2022년 43억원에서 지난해 10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0% 성장했다. 누적 거래액 역시 1800억 원을 돌파했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어르신 돌봄 영역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상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렌즈 온라인 주문, 입소문에 인지도 상승” “추석 연휴, 지니TV서 최신영화 보세요”

인터뷰
하파크리스틴 강남역점 김경태 대표



하파크리스틴 강남역점 전경. /피피비스티디오스

뷰티 렌즈 브랜드 '하파 크리스틴'은 지난 2019년 등장해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동시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울 강남역점을 비롯해 홍대, 신촌, 명동, 타임스퀘어 영등포, 압구정 로데오, 신계주점 등 총 7개의 브랜드샵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강남역점은 지난 2023년 7월에 개점해 현재 매장 개점 2년차에 접어들는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약 2억원으로 2023년 7월 대비 약 50% 증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파크리스틴 강남역점의 김경태 대표를 만나 성장비결 등을 들어봤다.

-소비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하파크리스틴의 브랜드 강점은 무엇인가.

“먼저 하파 크리스틴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유명해진 요인은 픽업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경과 렌즈가 의료기기에 속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가 불가능한데, 하파크리스틴은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예약을 하고 전국의 안경원이나 렌즈샵에서 제품을 수령하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주도하고 있다. 픽업 서비스 덕분에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

-온라인 서비스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인기도 높다. 차별점은 무엇인가.

“우선 하파 크리스틴 매장은 거의 모든 매장의 평균 평수가 30평에 가깝다. 넓은 공간에 적용된 브랜드를 상징하는 핑크색 인테리어가 고객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어당기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어플예약·매장수령 결제방식 주도 전문안경사 상담 등에 신뢰도 높여 하이엔드급 소재 개발 등 품질 향상 경쟁력 강화가 소비자 '인기' 비결

모든 고객이 실제 구매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제품별 포토 카드를 설치해 제품의 색상과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안경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사에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있다. 특히 하파 크리스틴 강남역점의 경우 국내 전체 하파 크리스틴 매장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안경사를 고용하고 있다.”

-뷰티 렌즈가 어떤 부분에서 K뷰티의 흥행 요소가 될 수 있는가.

“뷰티 렌즈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쉽게 말해, 최근 쿨톤, 워톤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메이크업 유행의 흐름에도 유연하게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파 크리스틴이

선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투톤렌즈'를 히트시켰다는 점이다. 출시 이후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할 만큼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고객분들은 색상뿐 아니라 디자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기존에는 눈동자 크기보다 렌즈 직경이 큰 제품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면 요즘은 눈동자 크기에 딱 맞는 렌즈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낸다. 뷰티 렌즈는 이러한 민감한 변화를 주도하면서 뷰티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뷰티 시장에서 하파 크리스틴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콘택트 렌즈는 우리 인체 특히 눈에 직접 착용하는 특수성이 있는 제품인 만큼, 그 소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약 10년 전부터는 산소 투과율이 높은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소재가 있었고 요즘에는 퍼스퍼필콜린이라는 PC코팅을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체 친화적이고 보다 부드러운 착용감을 구현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렌즈 기술들은 하파 크리스틴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렌즈 업계 전반에 걸친 K뷰티 렌즈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지속 발전시켜 프리미엄 소재의 제품군이 추가로 나와도 시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매장에서 많은 고객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가격이 높아도 눈에 좋은 제품, 내 눈이 편안해지는 재질에 대한 관심이 큰 경우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과 편안한 재질에 대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이엔드급 소재를 개발하는 등 지금보다 더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하 기자 mlee236@

KT, 12~22일 한가위 지니 위크

KT가 인터넷TV(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을 마련한다.

KT 지니 TV는 '추석에도 지니 TV와 함께하는 당신, 선물도 함께할지니~'를 주제로 오는 12일~22일까지 '2024 한가위 지니 위크(WEEK)' 특집관을 열고 경품 이벤트와 할인 및 무료 볼거리들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파일럿', '트위스터스', '탈주' 등 최신 영화를 1편 이상 구매한 뒤 TV 리모컨으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증정한다. 2편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는 TV 포인트를 제공한다.



KT 지니 TV에서 '2024 한가위 지니 WEEK' 특집관을 소개하는 모습. /KT

또한 KT는 30주년을 맞이한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기존 판매가에서 88%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왕좌의 게임' 시즌 1~8 풀 패키지도 60% 할인한다. 또 미국 드라마 '설국열차 시즌4'도 지니 TIV에서 국내 최초로 독점 제공한다. /이혜민 기자

동화약품, 하이로닉 주식 57.8% 인수

의료기기 사업 미용시장으로 확장

동화약품이 의료기기 사업을 미용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에 나섰다. 동화약품은 지난 6일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하이로닉과 주식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이번 계약 규모는 1600억원 수준으로,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주식 총 1397만 1431주(57.8%)를 인수하게 된다. 미래에셋벤처투자PE 등이 함께 투자하고 동화약품은 실사를 통해 오는 12월 13일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최대주주인 이진우와 그 특수관계인 이은숙으로부터 의결권 지분

838만 3277주를 1주당 1만 4400원에 총 1207억원을 들여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지분 45.09%를 취득하면서 하이로닉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최대주주 지분 취득과 함께 동화약품은 하이로닉 3자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한다. 하이로닉은 동화약품을 상대로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558만 8154주를 발행한다.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30%에 달해 전환청구 후 동화약품의 하이로닉 지분율은 57.78%로 높아진다. 또 상환전환우선주 전환가액은 1주당 7158원으로 최대주주 구주 취득가액의 49.7%로 절반 수준이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 3일이다. /이정하 기자

‘초저전력 반도체칩’ 등 44개 원천기술 개발에 575억 투입

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 R&D’ 예산규모 100억 이상, 최대 5년 소요 MIT·하버드대 교수 등 기관 참여

우리 기업과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된다. 연구과제는 현존 항암제의 내성·독성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인간 뇌의 작동방식 그대로를 구현하는 반도체(초저전력)칩,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로봇 손’ 기술 등 세계 최초·최고 원천기술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공동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1차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예산 규모

주요참여기업	연구소등
삼성디스플레이, 한화, 한독, LG전자HD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HD현대인프라코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올바이오파마, 유진로봇, 동진세미켄, 울촌화학, 서울반도체, 동서기공, 풍산디에이케이, 서울바이오시스, 노루페인트, 오토닉스, 대상주식회사, 나노인텍, 솔브레인홀딩스, 대주전자재료, 아이브이웍스, 뉴로메카, 한국수자원공사, 씨제이케이, 포스코실리콘솔루션 등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단국대부속병원 및 출연연, 전문연 대학 등

가 100억원 이상, 최대 5년간 소요되는 중장기 중대형 과제로, 공모에 접수된 247개 과제 중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과제다.

선정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MIT/한올바이오파마)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하버드대/한독)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AVL/HD현대중공업) △뇌혈관 시술

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존스홉킨스/엘엔로보틱스)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프라온호퍼/나노인텍) △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스탠퍼드/동진세미켄)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연구과제에는 MIT, 하버드대, 캠프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47개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 동진세미켄,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국내 기업,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노벨화학상(2023년) 수상자문지 바옌디 MIT 교수, 노벨물리학상(2014년)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UCSB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2027년까지 12개 글로벌 대학·연구소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오늘 오후 용산역서 홍보 운동

환경부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이웃사이(2642)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운동’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주제로 문제를 풀면 추첨을 통해 슬리퍼, 도어스토퍼, 의자발커버 등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제공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퍼즐 교보재를 비롯해 층간소음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제공된다.

환경부는 전국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제2회 전국 유아·어린이 대상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r

‘스마트축산 관리실태’ 교차점검 실시

농식품부, ICT 등 8개 道 간 진행 이달 10~27일, 도입성과 등 조사 축산장비 적정 설치 등 중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 사후관리(AS) 실태 등이 점검대상이다. 특히,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 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10~27일 기간 실시하며, 도입성과부터 사후관리(AS) 만족도까지 스마트축산 장비와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스마트축산장비 적정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약취저감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 성과 ▲설치

장비의 성능과 하자 여부 ▲사후관리(AS) 운영 실태 ▲운영 솔루션 업데이트 및 교육 현황 등이다. 아울러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현장 멘토링을 병행 지원한다.

또 각 시도와 협업해 점검대상 64개 스마트축산농가를 엄선했다. 점검 대상 축산농가는 최근 3개년(2021년~2023년)간 스마트축산장비를 설치한 농가 중 축종과 사육규모, 도입정보통신기술(ICT)장비 종류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점검팀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5인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각 도 스마트축산 담당자가, 팀원은 시·군 담당자(2명)와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 등 전문컨설턴트(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전문가(1명)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점검은 8개 도 간 ‘순환 교차방식’으

로 진행된다. 이해관계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점검팀이 각 지자체 스마트축산 운영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교차점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간 맞교환 방식(예: 경기↔강원)이 아닌 순환 교차방식으로 추진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축산농가가 많지 않거나 지역 특성상 교차점검이 여의치 않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우수 활용 농가를 발굴·소개해 스마트축산 도입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이나 사후관리(AS) 등이 현저히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에서 해당 장비를 제외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지자체와 협업해 스마트축산 도입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축산 도입 농가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김정옥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교차점검은 2014년 스마트축산 보급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시도된다”며 “이를 통해 시도 간 스마트축산 우수성과와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전보건공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등 추진

안전보건공단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산재 예방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9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4개 세부과제 시행이 추진된다. 지난 6월부터 추진과제 발굴을 시작했고, 시민참여 혁신단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말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국민 편의 중심, 산재예방 허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수행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안전한 산재예방 서비스 환경이다. 주요 추진 세부과제는 50여 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분석 및 실시간 안전대책 제공,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의한 고위험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산재예방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과제를 공유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지난달 주택전기로 전년比 평균 7520원 증가

한전, ‘누진제’ 영향에 요금 13% ↑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평균 752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9일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1년 전(5만6090원)보다 13%(752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8월 말 집계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 확정된다.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더 큰 이유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수록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

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등 3단계 구간으로 나눠 사용량이 높을수록 요금 부과금액이 커진다.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반면 오히려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 변동이 없는 가구는 1%로 나타났다.

한전은 예상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내년 총조사 추진 등 5628억 예산 편성

통계청, 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 집중

통계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3% 늘어난 562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영향으로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조사 효율화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기본통계인 총조사 실시, 통계 생산·서비스 혁신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가통계의 모집단과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5년 주기 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결합센서스·전자조사로 조사의 효율성

을 높여 1인가구 및 외국인 증가 등의 사회변화를 적극 반영한다. 농림어업 총조사는 2030년 등록센서스 전환을 위한 행정자료 전수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스마트농업 등 농·산·어촌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관련해서는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주요 통계를 지속 개선·개발한다. 통계품질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준비하고,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면적조사 표본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DB 구축 등으로 작성체계를 고도화한다.

/김연세 기자



명절선물세트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당신 곁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02-2273-4664

축산물 도소매 직거래 쇼핑몰

www.meatstation.co.kr

부산시, 5가지 테마 ‘웰니스 관광지’ 발굴

지난해 선정된 6곳 고도화
올해 신규 대상지 공모 실시
스태이·푸드 분야 추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

부산시가 목적형 관광 도시(SIT)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선정된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 6곳을 고도화하고, '2024년 신규 웰니스 관광지'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해양), 뷰티·스파, 요가·명상 3가지 테마 분야에서 선정됐다. ▲부산어린이대공원 치유의 숲 ▲아홉산숲 ▲광안리 섬존(SUP Zone) ▲클럽디오아시스 ▲내원정사 ▲홍법사다. 부산 특

화 해양·숲·치유의 도시 특성이 어우러진 힐링의 장소이자 위로의 공간이다. 시와 공사는 이를 대상으로 관광지

별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수용태세 개선, 마케팅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스테이, 푸드 테마가 추가된 총 5가지 분야로 확대해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16개 구·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광지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 성장 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평가해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과 홍보 마케팅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부산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해 웰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부산 웰니스 콘텐츠 운영에 활

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6회(회당 2시간),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로는 시민, 부산 웰니스 분야 종사자 및 관련 전공·자격 소지자를 우대한다. 교육 수료자는 향후 운영되는 부산 웰니스 관광 콘텐츠(원데이&스테이 체험프로그램)와 관련해 관광객 응대 및 운영 등 콘텐츠 운영 인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근록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힐링과 치유 중심의 관광 유행(트렌드)에 맞춰 부산 특화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하고 콘텐츠 고도화를 지원해 더 특별한 목적형 관광 도시 부산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암 월출도가 '보라'

전남도

이달 전통주, 영암 월출도가 '보라'

전남도가 9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이름처럼 은은하고 그윽하며 보랏빛이 매력적인 영암 월출도가 '보라'를 선정했다.

'보라'는 영암의 유기농쌀과 찹쌀, 유기농 자색고구마, 국산누룩과 물로만 빚고 150일의 긴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자색고구마 때문에 보랏빛을 띠며 동일한 이름으로 탁주와 약주를 선보이고 있다.

두 제품 모두 18도의 이양주로 목직하면서도 풍부한 산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목포시,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 도약

목포신항, 99MW 규모 기자재 적치
오는 12월 자온도 해상으로 준공
해상풍력 사업 전주기 지원 허브항만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목포신항 부두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사업(전남해상풍력, SK E&S)의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99MW(메가와트) 규모의 기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이달부터 자온도 해상으로 운송되어 오는 12월 준공 및 상업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목포신항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기자재의 생산과 조립, 해상운송은 물론 R&D(연구개발)와 기업지원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허브항만으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세계 1위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3,000억원 규모의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6월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신항 12만 6천여평이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해상풍력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속에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지역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경북도, 수산가공식품 수출 지원 박차

캐나다·베트남·인니 등 홍보 예정

경북도가 도내 기업들의 수산가공식품 수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0월에 캐나다와 베트남시장을 공략한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갤러리아 한인 마트 3개 지점에서 경북 11개사의 수산기업 30여개의 품목으로 홍보관측전을 열고 현지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함께 진행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경북 해양수산기업 7개사가 지역바이어를 찾아가는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은 인도네시아국제식품박람회에 6개사와 참가해 K-푸드를 알릴

예정이다.

앞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는 1984년부터 40회에 걸쳐 식품산업을 위한 무역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전 세계 미국, 중국 등 12개국에서 850사가 참가했다.

경북에서는 4개 기업이 참가해 상담실적 47건 수출 계약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경북도는 오는 2027년 수산물 수출 3억 달러 이상 달성 위한 '경북 블루푸드 수출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진도군, 사업비 2392억 확보... '역대최대'

민선8기 2년간 성과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민선8기 2년간(2023~2024년)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106건에 2392억원을 확보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인 인적 쇄신과 행정혁신 등 새로운 변화가 성과 창출로 이어지면서 '민생활력을 위한 진도군의 미래도약 새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진도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정부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최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서망항) 3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200억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122억원, 2023년에는 전남형 균형발전사업 3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200억원 등 대규모 국비 재원을 확보

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부흥을 위해 2023년에는 전체 진도군 예산의 30%가 넘는 1853억원의 예산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했고, 2024년에도 1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수산 등에 종사하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여름철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전복종자 양식어가 등에 생산장려금 약 4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사업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다함께 잘 사는 진도' 구현을 위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김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하여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육성, 끝말자원육성 품종 증식장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육성을 위한 미래도약이 기대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광주·전남, '자살·고독사' 예방대책 시급

공공임대주택 내 사례, 전국 두 번째

최근 5년간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내 자살·고독사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취약층에 대한 관심과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주택(연구·국민·공공임대)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자살 229건, 고독사 176건 등 총 405건이 발생했다. 지사별로 보면 광주·전남은 52건으로 부산·울산(74건)에 이어 전국

12개 지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고독사가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등 5년간 25건이 발생했다.

자살 사고는 같은 기간 ▲2019년 8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3건 ▲2024년 5건 등 27건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고독사 등 외로운 사망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신안군

위생업소 순환경제 참여 독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내 위생업소에서 자연순환 친환경 소재의 생분해 식탁보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실시된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선포식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 순환형 정책에 위생업소들도 적극 동참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진주시

여행자들 위한 '트래블라운지'

경남 진주시는 광경동 남가람공원에 진주를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진주 트래블라운지'를 본격 운영한다.

진주 트래블라운지는 야간관광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여행자센터로 여행객들에게 진주관광을 안내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남가람공원내 유희건물(옛 중앙광장 매점)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트래블라운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상주해 인근 배건네마을, 철도문화공원, 소망진산 유등공원 등을 소개하며 찾는 이들에게 더욱 알찬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저층 밀집구역 거주환경 개선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영양읍 서부리 중 일부 지역(약 13.6만㎡)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단독 등 4층 이하 노후 저층 주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민은 기금용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데 목적이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간판 바꾸고 ‘심기일전’...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재탄생

백화점 이름 댄 백화점

신세계백 경기점 ‘사우스시티’로 ‘경기 남부권 1등 백화점 의지’

롯데백 수원점 ‘타임빌라스 수원’ ‘스타필드 수원’과 본격 경쟁구도

현대백 부산점 ‘커넥트현대’로 문화체험 등 가능 복합쇼핑몰

백화점 3사가 치열한 경쟁 속에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떼고 의미 있고 새로운 간판을 내 걸거나 공간을 재구성하는 등 침체된 오프라인 시장에 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경기점 이름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사우스시티는 2007년 3월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었다. 2009년 10월 경기점으로 변경했다가 최근 재단



부산 ‘커넥트현대’



/현대백화점 수원 ‘타임빌라스’

/롯데백화점

장을 마치면서 다시 이름을 바꾼 것.

사우스시티는 죽전점으로 개장할 당시만 해도 인근에 백화점이 없었지만 이후 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광고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했다.

신세계 측은 “4년에 걸쳐 백화점을 재단장하고 백화점 옆 이마트도 스타필

드 마켓으로 점포명을 바꿨다”면서 “사우스시티는 지역 상권 개념을 확장한 이름으로 경기 남부권 1등 백화점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고배경을 설명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 5월 수원점 이름을 개장 10년 만에 ‘타임빌라스 수원’으로 변경하며 인근의 스타필드 수원과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타임빌라스는 롯데백화점이 내놓은 새 브랜드로,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요소와 쇼핑몰이 가진 다양성을 한데 모은 융합형 쇼핑몰을 뜻한다.

현대백화점은 개장 이후 29년만에 지난 6일 부산점을 재단장하며 ‘커넥트현대’로 간판을 바꿨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넥트현대 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니아층을 형성

하며 인기몰이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범일동 상권이 침체되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합쇼핑몰로 재단장했다.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웃렛의 가성비,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업태의 강점을 결합한 점포로 변화를 꾀했다.

커넥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연결하는 공간이라는 뜻의 새로운 브랜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커넥트현대 는 부산에는 없는 신개념의 유통 모델”이라며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부산의 ‘핫’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 되면서 각사에 맞는 전략을 새롭게 꾀하고 있다. 침체된 오프라인 매장들에 활기를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정관장 “에너지 충전부터 회복까지 한번에”

‘에브리타임 아웃도어’ 출시 6년근 홍삼농축액에 아르기닌 첨가

정관장은 홍삼과 아르기닌 조합으로 에너지 충전부터 체력회복까지 한번에 챙길 수 있는 ‘에브리타임 아웃도어’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에브리타임 아웃도어’는 6년근 홍삼 농축액 1500mg에 아르기닌 4000mg을 첨가해 체력 회복과 에너지 부스팅에 특화된 제품이다. 1회 섭취량 20ml 기준으로 장어(20g당 214ml)의 18배, 참굴(20g당 64ml)의 62배 수준의 아르기닌을 섭취할 수 있다.

아르기닌이란 우리 몸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로 간 기능과 혈관 기능, 운동 수행능력과 근육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 운동 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알려지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르기닌의 총 생산액은 지난 2020년 8869만원에서 2022년 446억원으로 급증했다.

‘에브리타임 아웃도어’는 아르기닌 흡수를 보완하는 L-아미노산을 배합해 아르기닌 효과를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L-카르니틴과 L-오르니틴, L-시트룰린 등의 조합으로 완성한 L-아미노산이 체내에 순환하여 아르기닌의 체내 흡수와 활력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비타민B와 타우린 등 피로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부원료까지 함유하고 휴대가 간편한 앰플형으로 출시되어 여행·캠핑·자전거·등산 등 아웃도어 활

동이 활발한 소비자에게 제격이다. 전국 정관장 로드샵,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 ‘정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정관장은 오는 18일까지 ‘추석에도 건강은 정관장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에브리타임’을 비롯하여, ‘홍삼정’, ‘다보록’, ‘홍삼탄’, ‘화애락’, ‘홍천옹’, ‘황진단’, ‘천녹’, ‘활기력’, ‘홍삼달임액’ 등 정관장의 대표 스테디셀러와 ‘장수: 울’, ‘기다림 침향’, ‘알엑스진 클린’, ‘버섯달임액’, ‘굿베이스’ 등 맞춤형 기능성 및 자연소재를 담은 제품에 한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정관장 멤버스 가입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을 적용하며, ‘건강 메시지 태그’ 및 ‘황진단 특별 보자기 서비스’ 등 굿즈 이벤트도 운영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일품진로 24년산 캐스크 스트렝스’ 선배

하이트진로, 크림서 추천 판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일 출시한 ‘일품진로 24년산 캐스크 스트렝스(사진)’를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에서 추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에 단 1000명 밖에 없는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렝스를 소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추천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

크림에서 10일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구매권을 제공한다. 추첨은 12일에 진행, 당첨자들은 12일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크림 홍대’ 매장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면 된다.

이번에 출시한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렝스는 올해 100주년 맞아 하이트진로가 공들여 만든 야심작이다. 캐스크 스트렝스(Cask Strength)란 오크통의 최종 병입단계에서 물을 타지 않고 숙성한 원액을 그대로 담은 양조 기법이다.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렝스는 24년간 숙성한 원액을 프리미엄 와인 ‘실버오크’의 오크통에서 피니시 숙성을 거치며 다채로운 향을 살린 38.5도의 최고급 증류식 소주이다. 희석없이 바로 병에 담아 ‘원액 그대로’의 깊은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렝스의 제품 패키지는 시그니처 디자인 블랙 사각병을 1리터로 확대해 명주의 존재감을 강조, 자개 디자인으로 전통미를 살렸다. 또 수공예 자개가 수놓아진 목함케이스에 스코틀랜드 유명 크리스탈잔 브랜드인 ‘글렌캐린’ 전용잔 2개를 포함시켰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K-스트릿푸드’ 테마 쓱세일

떡볶이·순대 등 준비... 12일까지

SSG닷컴이 오는 12일까지 ‘K-스트릿푸드’를 테마로 장보기 카테고리 특화 행사 ‘푸드 쓱세일’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절 연휴 간편하게 즐기 좋은 분식류를 한데 모아 선보인다. 인기 식품 브랜드의 떡볶이, 순대, 어묵, 김밥, 핫도그 등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 비비고 쌀떡볶이’와 ‘삼진어묵 클래식모듬’을 30% 할인 판매한다. 배송지에 따라 ‘오마뎡’, ‘도산분식’ 등 유명 분식집 상품도 혜택가에 구매할 수 있다.

인기 맛집 메뉴 간편식도 최대 50% 할인하며 수도권 중심 새벽배송, 택배 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

는 피터루거스스 바베큐 폭립·삼원가든 LA갈비·피양육 대파육개장 등을 준비했다.

추석 명절 준비에 필요한 장보기 상품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제수용 농산물, 한우, 참기름 등을 최대 반값 수준에 만나볼 수 있다.

이 기간 쓱닷컴은 10% 장바구니 쿠폰(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 할인)과 판매자 배송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15% 상품 쿠폰(최대 5000원 할인)을 선착순 발급한다.

이와 별도로 오는 11일까지 명절 선물세트에 적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상품 할인,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등 이마트몰 본매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동서식품 ‘오레오 코카콜라 맛’ 출시

동서식품은 코카-콜라와 컬래버레이션한 한정판 ‘오레오 코카-콜라 맛’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디저트 쿠키의 대명사인 오레오와 코카-콜라의 만남을 뜻하는 ‘Bestie forever(영원한 베스트 프렌드)’를 테마로 기획됐다.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함께 진행되는 이벤트다.

‘오레오 코카-콜라 맛’은 두 브랜드의 상징적인 맛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코카-콜라 맛 쿠키에 탄산처럼 터지는 팡핑캔디가 박혀있는 크림을 더해 씹을 때마다 코카-콜라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을 맞출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오비맥주, 임직원 준법·윤리경영 생활화

준법의 달 맞아 프로그램 운영

오비맥주는 ‘준법의 달(Compliance Month)’을 맞아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 내재화,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21년부터 매년 10월을 ‘준법의 달’로 정하고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매일 올바르게 양조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9월 한 달간 온·오프라인 준법교육, 빙고 챌린지, 컴플라이언스 레터 발행 등 다양한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 임직원 대상으로 회사 규범과 정책에 대해 교육한다. 교육 주제는 ▲업무수행준칙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채권교육 ▲정보보안교육 ▲다양성과 인권 존중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이다.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대처법을 애니메이션, 퀴즈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컴플라이언스 레터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빙고 챌린지’도 실시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고 준법 의식을 자가 점검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미술관에 온 패션매장”... 패션-예술 경계 허물자 구름인파

신세계인터 요지 야마모토 팝업 미술관 연상 컬렉션 전시공간 마련

MCM 아틀리에 비아기티 협업 매장에 작품전시·브랜드 진열

최근 폐막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축제 ‘프리즈 서울’에 작년 이어 이번에도 7만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아트페어 시장 성장세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아트페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페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시회를 겸한 패션 팝업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트페어는 여러 개의 예술 작품이 한 곳에 모여 전시 및 판매되는 행사를 뜻한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조 37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에 비해 37.2% 성장한 수치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트페어 시장이 성장세를 보인다. 아트페어 숫자와 함께 아트페어 관련 종사자 수가 늘어



프리즈 서울 입구 사진.

/뉴시스

것.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트페어 수는 2021년 65개에서 2023년 82개로 증가했으며, 2023년 아트페어 관련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미술 시장이 점점 커지자, 패션업계는 예술 작품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나섰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 6일 서울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에 디자이너 브랜드 요지 야마모토의 국내 첫 팝업 매장을 오픈했다. 특히 이번 팝업에 주목할 점은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컬렉션

전시 공간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올 가을 겨울 시즌 신규 상품과 사진작가 타카이(Takay)와 협업한 사진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패션 브랜드 엠씨엠(MCM) 역시 디자이너와 협업한 작품 전시를 팝업 매장에서 함께 진행했다. 엠씨엠은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팝업 매장에서 ‘웨어러블 까사’ 전시회를 진행했다. 매장 1층과 3층, 5층이 디자이너 아틀리에 비아기티(Atelier Biagetti)와 알베르토 비아기티(Alberto Biagetti)와 협업한 예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활용됐다. 2층과 4층은 엠씨엠의 기존 패션 브랜드 제품이 진열됐다.

한편, 패션 자체에 예술을 접목한 마케팅도 있다. CJ온스타일의 패션 브랜드 ‘셀럽샵 에디션’은 허명욱 색채 작가와 함께 협업한 의류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 7일 작품을 입다라는 주제로 11종의 신상품이 공개됐다.

특히 순수예술과 실용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허명욱 작가의 작품 ‘언타이틀 2023 옷칠 온 캔버스(Untitled 2023 ottchil on canvas)’의 작품을 표현한 ‘드로잉 샤 스커트’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언타이틀 2023 옷칠 온 패브릭(Untitled 2023 ottchil on fabric)’을 기반으로 한 셔츠 상품도 준비됐다.

CJ 온스타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셀럽샵 에디션은 업계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MZ세대를 중심으로 아트페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또 가을에 예술 작품 전시회가 많이 생겨나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마케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해태htb

구름산 탄산비타액 출시

LG생활건강의 자회사 해태htb가 자양강장 음료 브랜드 ‘영진 구름산’에서 ‘탄산비타액(150ml)’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구름산 탄산비타액’은 혼합음료로 판매되는 비타민 음료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구름산 탄산비타액’은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B2와 B6까지 함유해 피로 회복, 기미와 주근깨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탄산을 넣어 LG생활건강은 이번 신제품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짜릿한 상쾌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LF 헤지스

메타버스서 신상품 선봬

생활문화기업 LF의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이른 가을 신규 상품을 선보인다.

LF의 헤지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줌(ZEP)에서 프리폴(Pre-Fall) 컬렉션 ‘잉글리시 가든’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9일 밝혔다.

LF에 따르면 잉글리시 가든 팝업 스토어는 이달 동안 메타버스 줌을 통해 운영된다. 방문자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헤지스의 브랜드 역사와 함께 가을·겨울 시즌 상품군을 살펴볼 수 있다. 메타버스 잉글리시 가든 정원에 비치된 마네킹을 클릭하면 관련 화보도 확인할 수 있다.

헤지스는 메타버스 내에서 아이템을 획득해 옷장을 완성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와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안재선 기자

JW중외제약

하이브리드 보육기 첫 선

JW중외제약이 국내 최초로 보육기 국산화를 성공시킨 독자 기술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산의학학술대회(FA OPS 2024)’에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산의학학술대회’는 태아, 신생아, 산모와 관련된 주산의학 분야를 다루는 학술대회 중 하나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갖는다. 지난 1998년 이후 26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23개국 6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JW중외제약은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지난 2023년 6월 출시한 ‘하이-마미 하이브리드(JW-Hi7000) 보육기’를 전시했다.

국내 헬스케어 기업 중 최초로 JW중외제약이 자체 개발한 이 제품은 상부 패널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가운 장치가 작동해 신생아에게 최적의 온도를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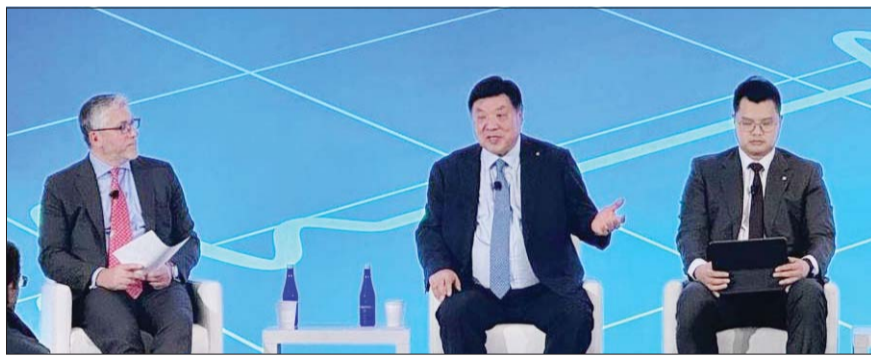
“ADC신약 2029년 상업화... 내년 매출 5조 기대”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회장
모건스탠리 헬스케어 콘퍼런스
‘집펜트라’ 올해 매출 2500억 전망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회 모건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과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오른쪽)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서진석 대표가 ‘선구자에서 혁신자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셀트리온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 상황 및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셀트리온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ADC(항체약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회 모건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가운데)과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오른쪽)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물 접합체)와 다중항체 영역으로 확장한다. 셀트리온은 오는 2029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선정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중 진척도가 가장 빠른 ADC 신약 2종은 올해 공개하고 2025년부터 임상 절차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문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쏟는다. 셀트리온은 2025년까지 11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2030년까지 22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넘어 천식·두드러기, 안과, 대사성골질 환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다제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서정진 회장은 다니엘 코헨 모건스탠리 미국 헬스케어 투자 부문 마케팅 디렉터와 대담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정진 회장은 올해 셀트리온 주력 제품의 성장 가능성과 향후 신규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이 지난 3월 미국에서 신약으로 첫 선을 보인 ‘집펜트라’가 올해 목표 매출 25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올해 전체 목표 3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 회장은 ‘집펜트라’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2025년에는 전체 매출 5조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키 크는 주사 ‘유티로핀’ 안전성·효과 확인

LG화학, 관찰연구 중간분석결과 발표

LG화학이 국내 처음 판매를 시작한 일명 키 크는 주사, ‘유티로핀’의 장기 치료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다. 국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저신장증 환자들의 치료에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LG화학은 7일, 소아 성장 전문 의료진 대상의 ‘LGS(LG 성장 연구·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 저신장증 환자 대상의 장기간 전향적 연구인 유티로핀 제품군 관찰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1993년 수입제품 대체를 위해 국내 최초의 저신장증 치료제 유티로핀을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펜 제형 제품의 생산 공정 내재화에 3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공급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LG화학은 국내 처음으로 한국 소아 대상의 성장호르몬 장기 투약 데이터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32년까지 20년간 환아 1만명을 모집해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을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전 세계에 차세대 재생 치료제 기술 알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30일 바이오헬스 네트워크 행사

오가노이드 기반 전문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차세대 재생 치료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린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30일 글로벌 바이오헬스 분야 대규모 네트워킹 행사 ‘아시아를 향해: 글로벌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은 물론, 베트남, 태

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산·학·연·병 및 정계 주요 인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9월 초 기준, 지난해를 뛰어넘는 굴지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 확정하면서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로는 가장 성대한 네트워크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최한 ‘한국-베트남 네트워킹 행사’가 올해는 아시아 국가 전역으로 확장됐다는 의미가 있다. 행사는 참석을 원하는 국내 관계자를 위해 9월 15일까지 등록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2024.9.25(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 |
|--|--|
| ◎ 행사명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이동의 한 순간 · 물류의 매 흐름, AI시대의 FLOW전략 |
|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14~17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 ◎ 문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9.3억 전달

BNK부산은행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부산은행은 현금 5억원과 전산기기 등 총 9억3000만원을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오른쪽)과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KB증권, 인도네시아 '무지개숲' 사업 추진

KB증권은 지난 5일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무지개교실' 완공식과 환경보호를 위한 '무지개숲'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왼쪽 세번째)와 탕에랑시 누르딘 시장(왼쪽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KB증권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현대위아, 열관리 시스템 '밋 업 데이' 개최

현대위아는 지난 6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TMS(열관리 시스템) '밋 업 데이'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등 국내 주요 대학의 자동차 열관리 분야 연구실 소속 석·박사 과정 학생 9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위아가 특정 분야 연구자를 위해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위아

상지학원, 성경룡 상지대 총장 선임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해 성경룡 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사진)을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성경룡의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2028년 9월 9일까지 4년이다. 성경룡은 1954년생으로 제1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제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lhj@

에스오일 '브라보비버 인천점' 지분 투자

에스오일이 회사의 핵심가치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스오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 인천점'에 대한 지분투자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브라보비버 인천점은 발달장애인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에스오일의 지분투자 참여에 따라 브라보비버 인천점에서는 5명의 발달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Neo QLED 8K 등 7개 모델 'VDE' 인증

업계 최초 화질 우수성 인증 획득 HDR 밝기·트루 시네마 블랙 2종

삼성전자는 2024년형 Neo QLED 8K·Neo QLED 등 총 7개 TV 모델이 업계 최초로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로부터 화질 우수성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HDR 밝기 정확도(HDR Brightness Accuracy)' ▲'트루 시네마 블랙(True Cinema Black)'이다.

VDE는 HDR 밝기 정확도(HDR Brightness Accuracy) 인증을 수여하며 2024년형 삼성전자 Neo QLED 8K·Neo QLED가 HDR 신호 표준에 근거해 HDR 콘텐츠의 밝기 수준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설명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용재 부사장(왼쪽)과 스벤 오케(Sven Ohrke) VDE 마케팅·영업담당 사장이 지난 5일 독일 베를린 IFA 삼성 전시관에서 진행된 화질 우수성 인증 수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했다. HDR(High Dynamic Range)은 영상의 밝고 어두운 영역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현실에 가까운 화질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HDR 밝기 정확도는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를 소비

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요소로, 삼성전자 Neo QLED 8K·Neo QLED의 화질이 인정 받은 것이다. 또 삼성전자 2024년형 Neo QLED 8K·Neo QLED는 업계 최초로 트루 시네마 블랙(True Cinema Black) 인증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전미 촬영 감독 협회(ASC, The American Society of Cinematographers) 공식 영상을 레터박스 모드로 시청할 때, 레터박스에서 표현되는 블랙 레벨이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 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해 수여된다. 뛰어난 로컬 디밍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로컬 디밍 성능이 뛰어나면 빛 번짐 없이 영화를 볼 때 많이 사용되는 레터박스 모드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사용자들의 시청 환경 향상을 위해 화질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고화질·초대형 스크린에 대한 품질 기준을 높여갈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차, WRC 그리스 랠리 '트리플 포디움' 달성

네번째 우승... 제조사 부문 1위

현대자동차가 2024 WRC 그리스 랠리에서 올해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시즌 우승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갔다.

현대차는 9월 5일부터 9월 8일(현지시간)까지 그리스 라미아에서 열린 '2024 WRC' 시즌 10라운드에서 현대차 월드랠리팀 참가선수 전원 이 1, 2, 3위를 석권하는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기에 티에리 누빌과 다니 소르도, 오토 타낙 등 3명의 선수가 현대차 월드랠리팀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출전했다. 현대팀 티에리 누빌은 다양한 코스



2024 WRC 그리스 랠리에서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한 현대 월드랠리팀 시상식 장면

에서의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팀 동료 2위 다니 소르도와 1분 이상의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현대 월드랠리팀에 시즌 네 번째 우승컵을 선사했다.

현대팀의 다니 소르도, 오토 타낙 역시 초반 이슈는 있었지만 이후 안

정적인 주행을 바탕으로 2위, 3위에 이름을 올리며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 현대 월드랠리팀 역시 소속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총 50점을 획득해 제조사 부문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양성운 기자 ysw@

NC문화재단 그림책 '토마토' 출간

엔씨소프트 사회공헌활동 재단인 NC문화재단이 그림책을 출간했다.

NC문화재단이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림책 토마토(사진)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NC문화재단에 따르면 그림책 토마토는 이지연 작가의 신간으로, 토마토 씨앗이 싹을 틔워 열매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다양성 존중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지연 작가는 2013년과 2015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각각 픽션과 논픽션 부문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이사가'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토마토'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아울러 전국의 공공도서관, 소규모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 2000여 곳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명절맞이 상생경영

아모레퍼시픽그룹, 560개 협력사 자금운용 돕는다

457억 규모 거래대금 조기 지급

아모레퍼시픽그룹(회장 서경배·사진)은 오는 18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457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조기 지급은 이날부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예

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9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애경산업, 거래대금 153억 조기 지급

생활부티기업 애경산업이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자사와 거래하는 8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153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1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

다고 9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이번 조기 지급을 진행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22년 설 명절부터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

기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석까지 조기 지급한 누적액은 총 56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애경산업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애경산업은 협력업체 재해율 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협력사의 공급망 지속가능성 제고,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 공유제 등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관 최현준
- ◆국가유신청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임종덕

부음

- ▲최희경(권사)씨 별세, 임영호(전 광주CBS보도국장·전 전남농업박물관장)·영기(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정현·영훈씨 모친상, 서경숙(전상무고교사)씨 시모상, 윤원중(전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총장)씨 장모상=9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101호실, 발인 11일 오전 10시30분. 062-521-4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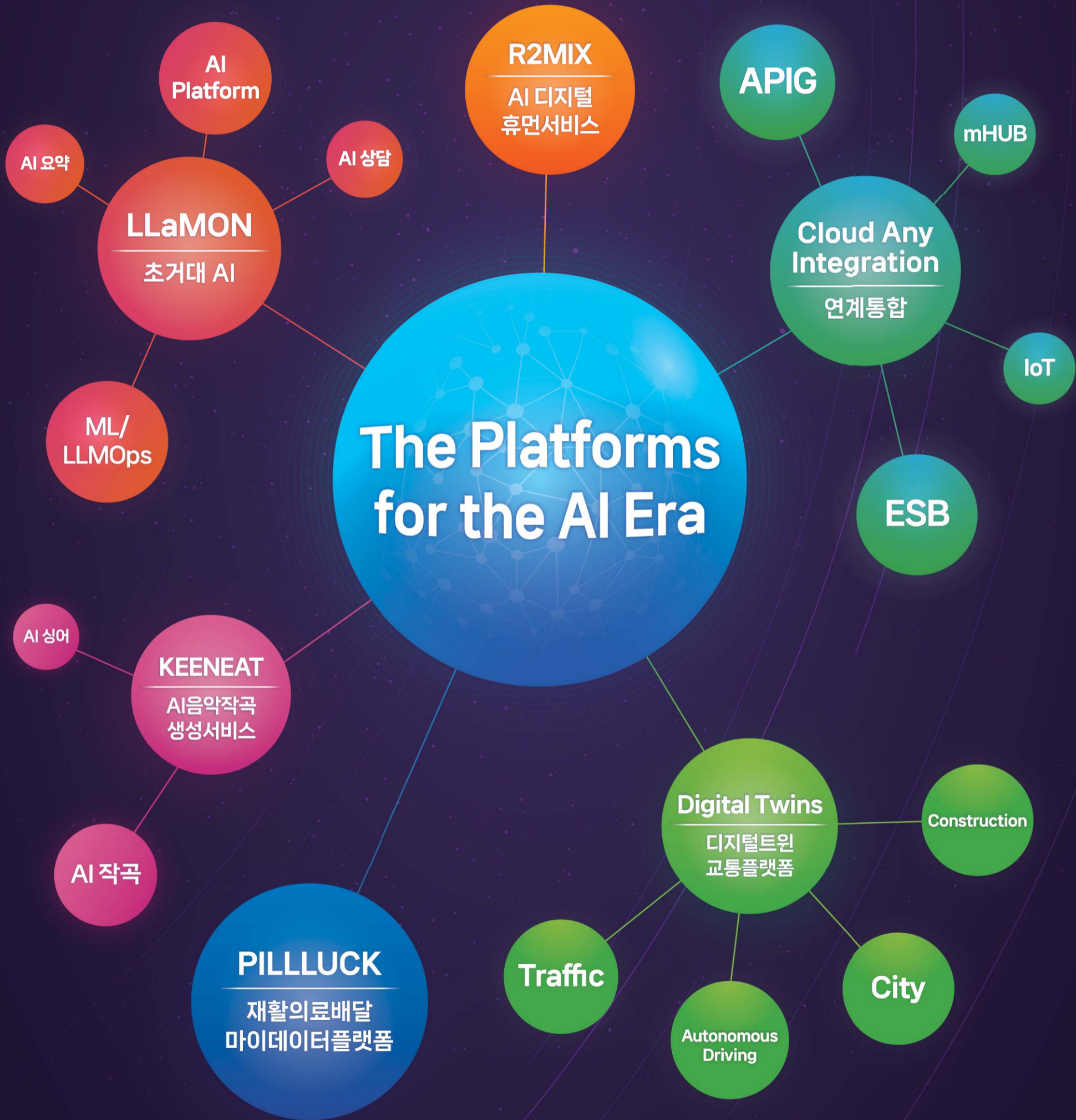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민츠버그의 빈 유리병 탈출 전략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빈 유리병에서 누가 먼저 탈출할까? 1982년 고든 시우 박사의 꿀벌과 파리의 탈출 경쟁 실험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쉽게 실험을 했듯이 파리는 빈 병의 여가지를 온몸으로 부딪치다 마침내 뚜껑이 없는 병 입구를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런데 꿀벌은 꼼짝없이 유리병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든 시우 박사의 실험 조건은 단순하다. 빈 유리병을 가로로 눕히고 햇빛이 들어오는 유리창 쪽으로 병 바닥이 향하게 놓았다. 유리병 안에 함께 있던 파리들이 2분간의 좌충우돌 끝에 여섯 마리 모두 입구를 찾아 빠져나가는 사이,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햇빛이 있는 유리창 쪽을 향해 몰려 들었다. 그 반대편에 열려 있는 병 입구 쪽으로는 인감생심 날갯짓 한 번 많은 채 여섯 마리 모두 지치거나 배고픔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 실험에서 파리가 꿀벌을 압도한 것

은 아무 것도 없다. 좌충우돌하며 본능적으로 길을 뚫을 뿐, 꿀벌의 길을 막은 적이 없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 따지면 꿀벌은 죄수들과 다름없다. 플라톤의 죄수들은 벽면을 향해 앉아 있으면서 자신들이 보는 것만이 실재라고 오긴다. 그러나 벽면에 비친 건 태양빛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이다. 여섯 마리의 꿀벌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실재라고 생각하며 죄수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실험을 통해 고든 시우 박사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벌들이 실패한 것은 날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며, 바로 그들의 지성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모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나치게 논리적인 행동을 고집한다. 반면, 논리에 무관심한 멍청한 파리들은 이리저리 맹렬하게 날며 여기서 종종 단순한 것을 기다리는 행운을 얻는다.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우호적인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다. 전략의 대가라고 불리는 헨리 민츠버그

교수는 꿀벌과 파리의 실험을 놓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도된 전략(Intended Strategy)과 창발적 전략(Emergent Strategy)을 구분해 냈기 때문이다. 평생 디자인이라는 이 칼럼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꿀벌은 유리병에서 나가려는 의도된 방향(빛이 들어오는 쪽)을 고집하지만, 그 전략은 실패로 끝난다. 이는 인생이 처음에 세운 계획이나 전략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때를 상징한다. 꿀벌의 행동은 의도된 전략에 해당한다. 파리는 특정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시도하면서 결국 유리병을 탈출한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대로 인생이 유연하게 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파리의 행동은 창발적 전략에 해당한다. 인생은 처음에 의도한 계획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맞춰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발현전략은 현실에서 인생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속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오늘의 운세 9월 10일 (음 8월 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어려운 친구 따돌리거나 비방하지 않도록. **4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훨씬 커진다. **60년생**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을 쳐라. **72년생** 기다리면 오게 마련이니 공부를 하면서. **84년생** 미루지 말고 오늘 청소는 오늘 해야.
- 37년생** 집안이 건재하려면 배우자가 건강해야 하니. **49년생**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말고 일을 신념으로. **61년생** 자식의 미래가 내 미래이니 이혼은 신중. **73년생**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날. **85년생** 뜻밖의 행운이니 기다려라.
- 38년생** 원하는 바를 기도 발원해보자. **50년생** 이리저러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살펴 주니 복이 들어온다. **62년생** 실력을 키우는 것이 큰 자산이다. **74년생** 직장 뒷사람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86년생** 가슴속에 묻어둔 벼이 찾아온다.
- 39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편감한다. **51년생** 자기결함을 고치는 것이 길의 지름길. **63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75년생** 보편적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87년생** 돈 문제 여자 문제 머리 아픈 날.
- 40년생** 하늘이 맑고 공기까지 좋으니 마음도 편안. **52년생** 정보를 잘못 알 수도 있으니 다시 살피자. **64년생** 귀인을 만나면서 투자도 무난하게 진행된다. **76년생** 무수 일 이든 한쪽이 양보할 수밖에. **88년생** 남을 도우니 결국 복으로 전환.
- 41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이 따르는 하루. **53년생** 동료와 협업을 서로에게 이로운 일을 준다. **65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77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 이 있다면 만나보라. **89년생** 나쁘다는 담배를 끊어보는 것도 실행해보자.
- 42년생** 남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미래를 보는 통찰력일 수. **54년생** 새로운 일에 두 려움을 갖지 말고. **66년생** 농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78년생** 종교나 정치에 관여 하기보다는 자신의 업무파악을 우선. **90년생** 술이 술을 부르니 어찌하냐.
- 43년생**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55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우선 의견통일. **67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79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있어 안심. **91년생** 게으르니 뭘 먹고 살꼬 서러워라.
- 44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주변을 보살피라. **56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주의. **68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숨기는 것이. **80년생** 타고난 재능도 있었으나 꾸준히 노력으로 해내자. **92년생** 하늘과 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라.
- 45년생** 분수를 지키면 실수가 적다. **57년생** 자신의 특기를 큰 자랑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별거 아니다. **69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여 바르게 일을 처리. **81년생** 남의 말 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93년생** 오늘은 무척 행복한 날.
- 46년생** 약사재일 약사기도를 해본다. **58년생** 과거에 소는 큰 재산이었다. **70년생** 도전을 해야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82년생** 체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듯 풍수에서 터를 잘못 건드리면 동타가 난다고 하지 않던가. **94년생** 화재를 조심.
- 47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날. **59년생** 퇴직 후 창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 **71년생** 물질에서 안는 행복도 소중. **83년생**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기도로. **95년생** 도망치는 노루보다 잡았던 토끼를 놓치니.

'수주 호황' 조선업체, 노사 갈등으로 위기 올 수도



기 지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슈퍼사이클' '수주 호황' 최근 3~4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조선 업체는 지난 2010년대 들어 수주 절벽으로 인한 임금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울산을 비롯해 거제, 영암 등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도 곤두박질 쳤다. 오랜기간 이어진 조선업체 불황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의 기다림 끝에 2020년도부터 조선 업체는 봄날을 맞이 시작했다. 조선소에서 신규 선박을 건조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감과 새 수주계약도 연이어 따내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같은 고난을 이겨낸 현재 조선 업체들은 노조와 갈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바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조선업체 실적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내 주요 조선사가 포함된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4일과 6일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각각 4시간과 3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10일과 11일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전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 9800원 정액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명절비 인상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 담겼다. 반면 사측은 과거 수주 절벽에 따른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불황에 맞설

성장동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경우 수년간 쌓인 누적 적자 및 미래 수주 불확실성 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노조(대우조선지회)도 실적 목표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300%(기준임금 기준)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조선업체의 미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수주 호황기를 맞았지만 파업 등의 여파로 이 기회가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황기 노사 갈등에 따른 이미지 실추보다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해 본다. /ysw@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보은(報恩)과 역사 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까지 있지 않은가? 우연히 종계변무(宗系辨誣)을 읽다 보니 은혜를 갚는 일이 역사까지 바꾸게 됨을 보면서 인연의 지중함과 보은에 감동하게 된다. 조선 중기 현재의 외교관에 해당하던 역관 홍순언은 명나라에 출장을 갔다. 일이 끝나자 명나라 관계자들이 손님 대접을 하고자 유곽으로 가서는 기생을 불렀다. 술상과 들어온 기녀는 소복 차림이었고 놀란 홍순언은 사연을 물었다. 자신은 류(柳)씨며 시골 출신인 그녀는 아버지와 장사를 하려 상경했다. 부친이 갑자기 사망해버렸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고향에도 내려갈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하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유곽으로 온 첫날임을 얘기했다. 이 소리를 들은 홍순언은 눈물을 흘리며 수중에 있던 은화 삼천냥을 그녀에게 주며 가서 고향으로 가 부친의 장사를 지내라고 말했다. 그녀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않자 그녀는 홍순언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한 후 떠났다. 이 돈은 출장비였던 것이어서 액수를 채워 놓지 못하자 그는 공금횡령의 죄목으로 조선에 돌아와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변인들은 뭐 하느냐 삼천냥을 썼냐고 그에게 물었으나 어디에 돈을 썼는지 끝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선조는 조선이 건국되었을 무렵부터 명서(明書)에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당시 그의 정적이었던 이인임을 영똥하게 그가 이성계의 아버지였으며 이성계가 아버지를 꺾고 왕이 됐다는 서술이 들어갔다.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50여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였다. 이번에 사신을 보내 바로 잡지 않으면 아예 거기서 죽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터였다. 이게 바로 종계변무(宗系辨誣) 사건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하루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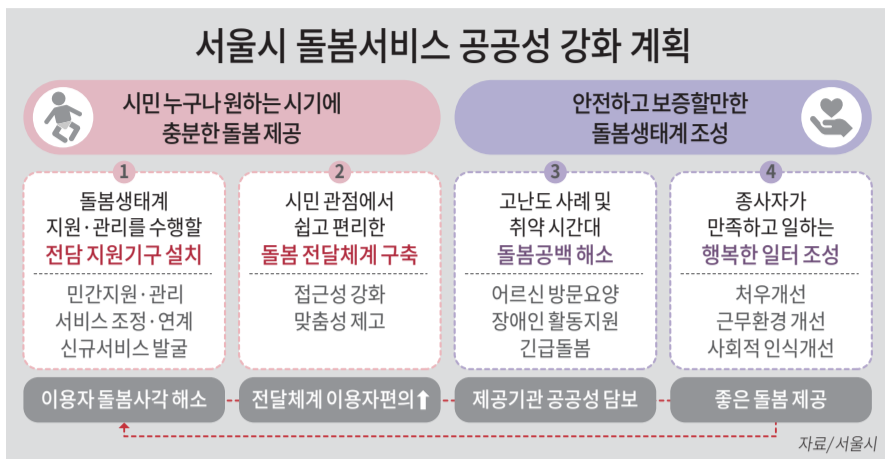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2 9 7 1 9 8
2 9 8 9 1 6 2 8 7
7 1 9 8 2 8 6 2 9
2 8 7 6 2 9 9 8 1
9 9 1 8 7 8 2 6 2
8 2 6 1 9 2 9 7 8
1 7 2 4 8 2 8 9 6
6 2 8 9 8 7 1 9
9 8 9 7 6 1 8 2

서울시, '돌봄서비스' 민간 주도 전환... "지원·관리 역할"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 발표 생태계 구축에 5년간 8786억 투입 일각선 서비스 기능 약화 우려도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통해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 돌봄 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공공의 역할을 기존 '서비스 직접 제공'에서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공공의 돌봄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9일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의 역할을 종전 '돌봄 직접 제공'에서 '민간 사회 서비스 기관·시설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서사원을 통해 민간기관을 지원해 사회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지원'으로 전환, 시민들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육성·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내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내달 문을 여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 지원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

한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 서비스 발굴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임무를 하게 된다.

'서사원을 해산하고 민간 지원 중심으로 공공 돌봄의 방향을 전환한데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질문에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사원이 공공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지 못했던 돌봄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또 민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원·관리하는 기능 자체는 아예 업무도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서사원을 통해서 하던 공공의 역할보다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충분한 돌봄 제공과 안전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5년간 87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시는 돌봄 전문 상담 콜센터인 '안심돌봄 120'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 개관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추석 차례상, 시장 24만원·마트 29만원 소요" 용인특례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전통시장, 마트에 비해 17% 저렴 가락시장 내 가락물 21만원 소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4만원, 대형 마트에서는 29만원정도가 들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서울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물) 총 25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평균 28만8727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평균 24만 785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7.4% 올랐

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17% 정도 저렴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가락시장 내 가락물의 경우 20만 9038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차례상 준비가 가능했다. 가락물은 대형마트

(8.4%) 대비 구매 비용 상승률(3.2%)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보다 차례상 차림비가 27.6% 저렴했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조사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보정·둔전 등 8개 상권 지정 추진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육성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

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크게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시는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윈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131개 정체구간 손본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내 주요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소통 개선을 위해 신호 체계를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올 4월 '상습 교통 정체 지점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상 구간 131개를 선정했다. 시는 일차적으로 지난 7월까지 71개소의 신호 체계를 손질했다. 신호 체계 개선 효과 분석 결과, 평균 대기 행렬 길이가 9.3% 줄었고, 통행속도는 8.7% 상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등과 이달 중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2차 신호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지하철, 17~18일 121회 증회 운행

서울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서울시는 명절 기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귀경객이 집중되는 이달 17~18일 하루 총 121회 증회 운행, 익일 새벽 2시(마지막 열차)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연장 운영한다. 대상 노선은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이다.

해당 기간 시내버스도 관내 3개 터미널(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터미널)과 5개 기차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을 경유하

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14개 노선도 추석 연휴 기간 매일 오후 11시1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노선별 상이)까지 정상 운영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오는 17~18일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은 일일 50회(용미리 경유 10회, 망우리 경유 40회) 증회 운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포스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9월 10일 (화) 음력: 8월 8일

수도권 날씨: 25 ~ 33°C

운동 지수: [진행률 막대]

빨래 지수: [진행률 막대]

세차 지수: [진행률 막대]

외출 지수: [진행률 막대]

지역별 날씨: 연천 22/32, 동두천 23/32, 가평 22/33, 파주 23/33, 서울 25/33, 양평 22/32, 인천 25/32, 수원 24/33, 평택 23/34, 용인 24/3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경제 키워드, 고관세·저세율·머스크
▲ 이스라엘, 시리아 중부 또 공습... 과학 연구시설과 무기고 폭격 /사진 뉴시스



▲ 프란치스코 교황, 파푸아뉴기니 정글 지대 도착... 구호품 가득 /사진 뉴시스
▲ "김정은 방문한 해군기지는 원산만 탐춘항...주요 기지 될 듯"

▲ TV토론 이틀 앞...해리스 '모의 토론' vs 트럼프 '정책 집중'
▲ "美 조지아주 고교 총격전 직전 용의자 모친 학교에 긴급 전화"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백화점 이름 떼고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나



Life

패션업계
아트페어 활용
마케팅 강화
L2



안전망 더 촘촘하게... 사람 중심 AI로 사회적 가치 높인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SK텔레콤

40년간 우리나라 이동통신 역사와 함께한 SK텔레콤(SKT)이 사회적가치 창출도 이끌고 있다. 본업인 이동통신 사업을 벗어나 인공지능(AI) 중심의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SKT는 ICT(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로 지난해 2조4927억원 규모의 사회적가치(SV)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SKT가 창출한 사회적가치(SV) 측정값

2022년	2조4,927억	12.1% 증가
2023년	2조7,949억원	

경제간접 기여성과

1조9,276억	2조3,362억원
9,054	고용 9,966
7,238	배당 7,656
2,984	납세 2,740
2022년	2023년

환경성과

1,111억	1,180억원
42	환경(공정) 29
△1,153	제품·서비스 △1,209
2022년	2023년

사회성과

6,761억	8,767억원
4,240	제품·서비스 6,463
1,776	공정 1,477
745	사회공헌 827
2022년	2023년

자료/SKT텔레콤

◆사회적가치 2조8000억원 창출...6년 연속 증가

SKT는 지난 2018년부터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는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산식을 사용해 화폐화 했다.

SKT가 창출한 사회적가치는 2019년 1조8709억원, 2020년 1조9457억원, 2021년 2조3408억원, 2022년 2조4927억원, 지난해 2조7949억원으로 6년째 매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독거어르신 등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만들면서, 사회 분야의 SV 창출이 크게 늘었다.

SKT의 23년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전년 대비 5.6% 증가한 2조362억 원 ▲ '환경 성과'는 6.2% 감소한 -1,180억 원 ▲ '사회 성과'는 29.7% 증가한 8767억 원으로 나타났다.

◆AI중심 ESG 통합 브랜드 구축

SKT는 인간 중심의 AI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한다.

SK텔레콤은 올해 발간한 ESG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탄소 중립) ▲AI 기반 Core Biz 재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특히 이중 AI 분야는 따로 스페셜 리포트로 만들어 '사람 중심의 AI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공고히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AI 중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브랜드를 만든다. 사회적 AI 기술을 활용한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적 임팩트 확대를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SKT는 연내를 목표로 AI ESG 통합 브랜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자체 AI 기술을 활용한 ESG 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활동 중심점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통합 브랜드 후보군으로는 ESGXAI 등이 거론된다.

SKT 관계자는 "AI 기반 ESG 경영 및 프로젝트를 통합할 브랜딩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ESGXAI를 포함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상돌보는 AI케어 '900명 이상 독거어르신 구조'

대표적 사례는 AI 케어다. ESG 거대인어모델(LLM)을 활용한 AI 스피커, AI 콜과 비전AI 기술이 적용된 AI CCTV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치료와 일상생활을 돕고 독거노인 돌봄·긴급구조·치매 예방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AI콜'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본격 추진을 위해 카카오프렌즈, 밀알복지재단, 경기남부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종환 SK텔레콤 ESG혁신 담당, 윤정백 카카오프렌즈CCO,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동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이 콜 금융범죄 예방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AI 스피커 '누구(NUGU)' 기반의 긴급 SOS 서비스는 최근 긴급 구조 사례 500건을 돌파했다. 한 고령자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사회적가치 창출 6년째 매년 성장 보이스피싱 예방 등 사회분야 SV↑

AI 기술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구축 긴급SOS 등 독거노인 통합 돌봄 지원 약 460여개 스타트업 발굴·육성도

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인 'AI Care'는 2019년 4월 이래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소방청과 연계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총 906명 이상의 독거어르신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SKT AI 스피커 누구(NUGU) 기반의 '긴급 SOS'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구조 사례가 누적 500건을 돌파했다. 독거어르신,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AI 상담사 기반의 AI Call 서비스를 전국 15만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SKT는 AI 스타트업 육성 사

업인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하 AI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참여 스타트업들의 누적 기업 가치는 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SKT는 재창업을 지원하는 지금까지 약 460여개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했다. 이 가운데 100여건 사업 연계도 이뤄졌다. 오늘의집은 SKT 지원기업 중 첫 유니콘이란 기록을 남겼다.

최근 SK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2기 15개 기업을 선발한 AI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이와 별도로 20개 기업을 선발한 'ESG 코리아' 중심으로 재편했다. ESG 코리아는 AI로 ESG 가치를 달성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SKT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또한 ESG 파트에서 맡고 있다.

박용주 SKT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적용 확대(E),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S), AI Governance 고도화(G) 등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토트넘 전담 기자, 손흥민 재계약 가능성 시사... "여전히 훌륭한 선수"
▲김하성 언제 돌아오나... 감독 "이른 복귀 어려워" /사진 뉴시스

▲2024 파리 패럴림픽 폐회... 한국 종합 순위 22위
▲고우석, 마이너리그 더블A서 또 흔들... 1이닝 3실점 1자책점



▲'팔레스타인전 제외' 양민혁, 오만전서 A매치 데뷔 재도전
▲한국 핸드볼, 요르단 누르고 표창소년 선수권 4강행 /사진 뉴시스